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85호
2026년 6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발행인: 황효숙 편집장: 신복례

황효숙 회장, 고(故) 이용락 제6대 미주동창회장 장례식 참석 위해 시카고 방문

공동체 정신·섬김의 가치 계승 다짐 시카고 지부와와의 돈독한 협력 재확인

미주동창회 제18대 회장단(회장 황효숙)이 5월 19일(화)부터 20일(수)까지 시카고를 방문해 고(故) 이용락(공대48) 제6대 미주동창회장의 장례 일정에 참석했다.

지난해 9월 제2대 회장을 지낸 고(故) 강수상 박사의 장례식에 이은 두 번째 시카고 조문 방문으로, 미주동창회 발전에 헌신한 역대 회장들의 발자취를 기리고 그 공로를 예우하는 자리였다.

향년 97세로 영면한 고(故) 이용락 회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제6대 서울대 미주동창회장을 역임하며, 초기 미주동창회가 전국적 조직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각 지역 동문회를 하나의 미주 동문 공동체로 연결하고 지역 간 협력과 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쓰며, 미주동창회의 조직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천국환송예배(Celebration of Life Service)는 5월 19일 오후 5시, 일리노이주 Mt. Prospect 소재 Matz Funeral Home에서 거행되었다.

이튿날인 20일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발인예배(Funeral Service)가 진행된 데 이어, 오전 11시경 Des Plaines 소재 All Saints Cemetery에서 하관예배가 엄수되었다.

미주동창회는 고인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며 근조화환을 전달해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황효숙 회장은 미주동창회를 대표하여 추모사를 전했다. 미주동창회 장학위원회 위원장 겸 IT담당 고문인 한흥택(공60) 박사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활동 시절부터 이어진 고인과의 오랜 인연을 회고하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황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고인이 미주동창회를 한 시기의 모임이 아닌 세대를 이어 지속되는 공동체로 바라보았다고 회

고했다.

또한 고인이 사람과 사람의 연결, 모교에 대한 애정, 봉사의 마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삶으로 보여주었다고 추모하며, 그가 남긴 공동체 정신과 섬김의 가치를 이어받아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미주동창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장례 일정을 마친 황효숙 미주동창회장과 임동근 총무국장은 이동균(공대75) 시카고 지부 회장, 윤봉수(간호대69) 차기 시카고 지부 회장 부부, 이준수(공대76) 미주동창회 조직관리 담당 고문 겸 시카고 지부 부회장, 조규승(문리대72) 시카고 지부 고문, 전현일(농대62) 골든클럽 회장 등 시카고 동문들과 저녁 만찬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시카고 지부의 활동 현황과 미주동창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측의 공동 비전을 토대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회장단이 제35차 평의원회에 시카고 지부가 가장 많은 인원으로 참석할 예정인 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튿날인 20일에는 시카고 원로 이사 한경진(상대59), 안창혁(사대65) 동문과 조찬을 함께하며 미주 동문사회의 발전 방향과 세대 간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회장단의 이번 시카고 방문은 고(故) 이용락 회장의 삶과 헌신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이자, 미주동창회와 시카고 지부가 동문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회장단은 역대 회장들이 남긴 봉사와 연결의 정신을 이어, 세대를 잇는 동문 공동체로서 미주동창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갈 뜻을 다졌다.

글= 임동근 (농대 대학원 14)
미주동창회 총무국장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이 지난 5월 19일~20일 시카고를 방문해 고(故) 이용락 제6대 미주동창회장의 장례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미주동창회는 고인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며 근조화환을 전달했다.

실리콘밸리 유니콘 '센드버드' 김동신 대표 인터뷰 4·5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인터뷰 6·7면

서울대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612-280-7589 | Email: contact@snuaa.org

AI와 함께 쓰는 자서전, 미주동창회 ‘MY Way’ 포럼 첫발

6월 17일 두 번째 모임
남가주 한효동 동문 이야기

미주동창회가 동문들의 자서전 쓰기를 돕기 위해 새로 시작한 ‘MY Way’ 포럼이 지난 5월 20일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10명에 가까운 동문들이 참여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서전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한효택(공대 60) 미주동

창회 IT 위원장의 설명에 귀기울였다. 한효택 박사는 “썸을 이용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레코딩하고 구글의 제미나이나 노트북LM(NotebookLM)과 같은 AI 툴을 이용하면, 이를 손쉽게 텍스트로 변환하고 자서전 원고로 다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박사는 “AI가 만들어준 초안을 바탕으로 적절한 제시어(프롬프트)를 주면서 문장의 순서를 바꾸거나 내용을 수정해 나가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자서전을 완성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노하우를 덧붙였다. 사실 썸을 이용하던 혼자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던 자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자녀나 후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동문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듬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 안에서 용기를 얻어 자서전 쓰기의 첫 발걸

음을 내딛도록 돕는 것이 바로 ‘MY Way’ 포럼이 출범한 이유다.

‘MY Way’ 포럼의 두 번째 모임은 오는 6월 17일 오후 5시(서부시간) 열리며 남가주 한효동(공대 58) 동문이 ‘My journey from SNU to UCLA’를 주제로 자서전 쓰기를 시작한다. 미주동창회 웹사이트(snuaa.org) 우측 중간의 Join Our Monthly ZOOM Meetings at 5 pm PT에서 ‘MY Way’를 클릭하면 썸 미팅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대 젊은 동문들, 실리콘밸리서 협력과 혁신을 논하다

Time (tentative)
Friday, August 14, 5:00 PM – Saturday, August 15, 9:00 PM

Place
Near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TBD)

Contact
edge.snuaa@gmail.com

Registration
Open on June 15

1 Vision
Create a premier global platform where younger alumni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nect across industries, generations, and countries to foster innovation, entrepreneurship, mentorship, and lifelong collaboration.

2 Objectives
Strengthen the global network among younger SNU alumni.
Build stronger ties across the global SNU alumni network
Encourage collaboration in:

Startups

AI and technology

Research

Media and creative industries

Create mentorship opportunities between senior and younger alumni.
Position SNUAA as a leading global alumni community.

3 Target Audience

Primary Audience

- SNU alumni in their 20s–40s
- Young professionals
- Founders and entrepreneurs
- Engineers and researchers
- Graduate students
- Investors and operators
- Professionals in AI, biotech, finance, media, and venture capital

Geographic Reach

- Young alumni nationwide in the U.S.
- Korea-based alumni visiting Silicon Valley
- International SNU alumni

Contact:
edge.snuaa@gmail.com

Hos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SNUAA USA)

Organized by
SNUAA EDGE Committee

SNUAA NEXT 2026 8월 14~15일 이틀간 샌프란시스코서 개최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는 오는 8월 14~15일 이틀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차세대 동문 네트워킹 행사인 ‘SNUAA NEXT 2026’을 개최한다.

미주동창회 산하 SNUAA EDGE 위원회(위원장 양경호)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동문들과 미국 전역, 한국 및 해외 각지의 젊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기획되었다.

SNUAA NEXT 2026은 AI, 정보통신, 바이오, 스타트업, 벤처투자,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서로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금요일 저녁 네트워킹 리셉션과 토요일 하루 종일 진행되는 포럼 및 교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동문 강연과 패널토론, 스타트업 및 글로벌 기업 경험 공유, 멘토링 및 자유 네트워킹 세션 등을 통해 세대와 지역을 넘어선 연결과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와 글로벌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미국을 잇는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함으로써, 젊은 동문들에게 글로벌 무대에서의 도전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SNUAA EDGE 위원회는 앞으로도 젊은 동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대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참조, 문의: edge.snuaa@gmail.com)

글=이경은(미학과15)
포스터=이민경 (디자인학과 09)
SNUAA EDGE 위원회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제35차 평의원회의

MINNEAPOLIS, MINNESOTA

2026년 6월 26일(금) - 28일(일)

Cambria Hotel Mall of America

8001 Winstead Way, Bloomington, MN 55425

DAY 1

6/26
(FRI)

- 1:00 PM – 5:30 PM **등록 및 리셉션**
- 5:30 PM – 6:15 PM **가야금 세미나 및 연주** 이수진(음대96) 박사
“가야금으로 만나는 한국 음악의 현재”
- 6:15 PM – 7:30 PM **환영만찬**
- 7:30 PM – 8:00 PM **SNUAA 장학금 수여식**

DAY 2

6/27
(SAT)

- 9:00 AM – 12:00 PM **평의원 본회의 (오전)**
- 12:00 PM – 2:00 PM **오찬**
- 12:00 PM – 5:00 PM** **Lake Minnetonka Cruise & Mall of America 투어**
(회의 미참석자 및 동반가족 대상)
- 2:00 PM – 4:00 PM **평의원 본회의 (오후)**
- 6:00 PM – 6:30 PM **특별 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음대84, Indiana University)
피아니스트 이소정 (음대84, Judson University)
- 6:30 PM – 6:40 PM **공로패 시상식**
- 6:40 PM – 7:30 PM **축하 만찬**
- 7:30 PM – 8:00 PM **기조연설** 이진형 교수(공대95, Stanford University)
“AI and the Future of Brain Health:
Circuit-Based Diagnosis and Treatment of Brain Disorders”
- 8:00 PM – **지부 회장 모임**

DAY 3

6/28
(SUN)

- 12:00 PM – 3:00 PM **크루즈 선상 파티**

글로벌 AI 시대와 스타트업 - 동문 혁신 리더에게 묻다 (1)

글로벌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대, 대학 동문 네트워크는 더 이상 단순한 친목 모임에 머물지 않는다. 산업과 기술,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대 미주동창회보가 미국 전역에서 활약하는 서울대 출신 성공한 창업가, 벤처투자자, 스타트업 기관장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과 통찰을 전하는 특집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다.

인터뷰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발을 내딛은 젊은 후배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를 만들어낸 선배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 최초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을 일군 샌드버드(Sendbird)의 공동창업자 겸 CEO 김동신(공대 99) 대표다.

샌드버드는 기업이 자사 앱과 서비스 안에서 채팅, 고객 상담, 커뮤니티 기능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1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이다. 전 세계 3억 명 이상이 매달 샌드버드의 기술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챗봇과 AI 상담사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AI 시대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될 때까지 창의적으로 수단·방법 가리지 말아라”

이번 인터뷰는 Primary Market Research를 위한 AI 에이전트 개발을 목표로 2024년 실리콘밸리에서 플래툰(Platoon)을 창업한 공대 후배 채무진(전기공학부 08) 대표가 진행했다. 채무진은 지난 5월 25일 실리콘밸리 샌드버드 본사에서 김동신 대표를 만나, 서울대에서의 출발점부터 실리콘밸리 진출, AI 시대 창업과 엔지니어의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Q 대표님은 엔지니어에서 창업가로,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CEO로 역할이 계속 바뀌어 왔는데, 돌이켜봤을 때 대표님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나요?

A 저는 원래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는 사람들을 모아 함께 푸는 경험 자체를 즐겼고요. 병역특례 시절, 업무를 하면서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발 툴을 만들어 배포했는데,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경험을 하면서 기술로 문제를 푸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후 책을 통해 기업이 더 큰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제품을 만들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대학 시절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 학생들은 창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직접 회사를 만들어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진출 역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스타트업 관련 정보나 커뮤니티가 부족해서 주로 미국 자료를 보며 공부하고 스테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가 “실리콘밸리에 가면 너 같은 사람이 많아서 안 외로울 것”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좀 특이한 사람처럼 여겨졌거든요.

결정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출장 경험이 컸습니다. VC와 스타트업 대표들이 카페에서 자유롭게 교류하는 분위기를 보면서 “이곳이 내가 활동할 무대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미국 진출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Q 내 기술로 문제를 풀겠다는 열정이 창업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런데 한국을 넘어 실리콘밸리라는 더 큰 무대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실리콘밸리에서 플래툰을 창업한 채무진 동문이 샌드버드 김동신 대표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성실과 집요함은 한국 창업자들 강점이지만 몸에 배어있는 겸손은 실리콘밸리에선 약점 의식적으로라도 저돌적인 자신감을 체득해야"

A 2007년 창업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나 관련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업 때 미국 이전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대가 있었고, 외환관리법 같은 규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계기로 두 번째 스타트업은 반드시 미국에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내부적으로 개발하던 메신저 기능을 SDK/API 형태로 사업화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시작했는데, 초기 유료 고객이 생기면서 사업성을 확인했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2014년 미국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관련 선례가 거의 없어 법률 해석부터 새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역시 경험이 없다 보니 긴 미국 계약서를 한글로 번역하고 공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반대도 강했습니다. 닷컴 버블 시기 한국 기업들의 실

패 경험 영향으로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일부 있었습니다.

Q 선례가 없는 길을 개척하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몸으로 부딪쳐 보시면서 느끼신 글로벌 무대 속 한국 인재들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깨뜨려야 했던 한국식 사고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있었는데도 궁금합니다.

A 한국 창업자들의 강점은 성실함과 집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내재된 겸손함은 실리콘밸리에서 요구하는 저돌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와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려면 의식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벗어나 자신감 넘치는 외국인 창업가들과 많이 교류하면서 그들의 태도와 문화를 흡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한국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전투력이 강하고 개방적인 외국인 창업가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의 문화를 체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쓴 글에서도 ‘자신의 동족 집단에서 먼 곳에 가서 살아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사고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Y Combinator 모임에서 자신감 넘치는 인도 창업자들을 보며 배우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국 환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환경을 바꾸서 스스로를 단련하셨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인 커뮤니티를 멀리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표님의 출발점인 서울대 시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 시절의 경험 중 지금까지도 대표님의 생각이나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A 서울대에서의 경험은 지금의 저를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어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실제 수업 내용, 사람들의 커뮤니티와 문화, 그리고 실제 사람에게 받은 영향입니다.

먼저 수업 측면에서는 복학



실리콘밸리 한국인 첫 유니콘, '센드버드' 김동신(공대 99) 대표

“창업 사관학교 설립해 후배들 키우는 것이 개인적인 꿈”

김동신 센드버드 대표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한 김 대표의 이력은 독특하다. 대학 시절 그는 한국 1위 ‘언리얼 토너먼트’ 프로그래머로 활약하며 세계대회 상위권에 올랐던 ‘1세대 게이머’ 출신이다. 당시 승부 세계에 다진 자기 훈련과 한계 극복 능력을 바탕으로 엔씨소프트 개발자를 거쳐 본격적인 연쇄 창업가의 길로 들어섰다. 첫 창업인 소셜게임 스타트업 ‘파프리카랩’을 설립해 글로벌 성과를 거둔 뒤 일본 게임

기업 GREE에 매각하며 역량을 증명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탄생시킨 센드버드는 전자상거래, 금융, 온디맨드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글로벌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대화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김 대표는 현재 창업가를 넘어 후배 양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이끄는 투자자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 전문 벤처캐피털인 발론캐피털(Valon Capital)의 제너럴 파트너로서 B2B 소프트웨어, 핀테크, 인프라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엔

젤 및 시드 투자자로 참여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사관학교 교장’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김 대표는 자신의 실리콘밸리 경험과 실패의 교훈을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다. “실제 사관학교를 설립해 멘토와 멘티가 다 함께 숙식하며 창업 트레이닝에 매진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밝히기도 한 그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업가 정신과 미래 AI 산업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하며 실리콘밸리의 상징적인 한인 창업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후 AI, 알고리즘, 건축학, 심리학 등 관심 있던 수업들을 들으며 많은 영감을 얻었으며 특히 복잡계 과학이나 뇌과학 관련 스테디는 지금 사업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수업에서 얻은 진화적 관점이나 인지과학적 지식은 사람과 조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경영 서적보다 더 큰 힌트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부 3, 4학년 때 최신 내용을 다루는 대학원 수업을 들었던 경험도 매우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와 문화입니다. 서울대 커뮤니티에는 주변 사람들이 가진 높은 기준, 이른바 퀄리티 바(Quality Bar)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내야 한다는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대 동아리인 'N-CEO'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창업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 진지하게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사람들에게 받은 영향입니다. 동아리 선배의 스타트업에서 첫 인턴 경험을 했는데, 당시의 인연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기도 하고, CPO 역할을 맡거나 엔젤 투자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AI가 산업 전반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대화는 자연스럽게 AI 시대로 옮겨갔다.

Q 센드버드가 글로벌 B2B SaaS 기업으로 성장해 온 만큼, 지금의 AI 패러다임 변화를 바라보시는 시각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의 AI 열풍은 과거 SaaS가 본격적으로 부상하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지금 AI 시대는 고객들이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도입해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닷컴 버블 시기와 비슷한

엔지니어에서 창업, 글로벌 기업 CEO 까지 서울대에서의 경험은 저를 만든 큰 밑거름 당시 인연이 일하는 동료, 엔젤 투자 관계로

면이 있습니다. SaaS는 가격과 사용법이 명확해 세일즈가 비교적 단순한 방식이었다면, AI 제품은 고객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고객사에 거의 상주하며 컨설팅하거나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줘야 할 정도로 깊은 관여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Q 일각에서는 기존 기업들이 AI를 무기로 들고 나온 AI-native 기업들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펼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기존 기업의 AI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리 법칙이 아닌 이상 결국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AI 네이티브 기업은 출발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다른 경쟁자들도 비교적 쉽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반면 기존 기업이 인프라나 하드웨어 같은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AI 전환까지 성공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B2B SaaS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기업들이 직원 수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구독(subscription)하는 모델이 정말 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A 기존의 구독(subscription) 모델은 직원 수 기반으로 예산 예측이 쉬운, 인간 중심의 편의성 모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A2A(Agent-to-Agent) 경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속도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게 되면, 고정된 구독료보다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사용량 기반(consumption-based) 모델이 더 적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독 모델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일부 유지되면서, 사용량 기반 모델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새로운 AI 시대에 엔지니어는 어떤 방향으로 역량을 키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AI로 엔지니어의 생산성이 10배, 100배 향상된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종의 제본스의 역설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다만 병목 지점은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개발 실행 자체가 병목이었다면, 앞으로는 퀄리티 있는 아이디어와 방향성 설정, 즉 얼라인먼트(alignment)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도 단순히 코딩하는 역할을 넘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판단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조직의 방향성을 맞추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회사를 만든 서울대 선배로서, 이 시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을 동문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것보다 '지칠 줄 모르면서도 지략이 풍부한(Relentlessly Resourceful)'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되,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긍정적 집요함(Positive Tenacity)’입니다. “될 때까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창업가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은 어쩌면 허황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힘과 동시에 지지 않는 긍정적 집요함도 필요합니다. 또 창업을 하면서 얻는 큰 혜택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평소라면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함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센드버드가 글로벌 무대에서 독보적인 성공을 거둔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고, 후배 창업가로서도 수많은 가르침과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흔쾌히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비전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신 김동신 대표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만남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든든한 가고 역할을 해온 양경호(공대 83) 동문의 소개로 성사되었다. 서울대 선배를 잇는 끈끈한 연결의 힘 덕분이었다. 김동신 대표의 생생한 조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리콘밸리와 글로벌 무대를 꿈꾸며 창업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깊은 울림과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글=채무진(공대 전기공학부 08)



김동신 센드버드 대표와 인터뷰를 한 채무진 플레톤 대표.

정태영 편집위원이 만난 반기문(문리대 63) 전 UN 사무총장

“미국이 스스로 걷어찬 리더십, 다시 보여주기를”

오랜만에 찾은 한국의 오월은 달리 표현할 말을 찾을 필요도 없이 딱 노천명의 ‘푸른 오월’ 그대로였다. 계절의 여왕 오월의 푸르름 속에 여름으로 직행하는 따가운 햇살을 맞으며 점심 약속 장소로 갔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특유의 책임감과 열정이 묻어 나오는 목소리로 요즘의 국제상황에 대한 소견을 거침없이 피력했다.

지난 5월 13일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편집위원인 정태영(문리대 71·뉴잉글랜드 지부) 동문이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 나누는 대담 내용을 보내왔다.

-요즘에도 해외에 자주 나가시나요?

“자주 나가요, 많이.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39개국을 갔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하루에 일정 하나 소화하기도 힘든데요.

“이달에는 알제리하고 요르단을 가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지난달에는 저 어디를 갔다 왔는지 하여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4월에는 남아프리카, 거기를 갔었죠. 거기서 연설해 달라고 해서...”

〈평화론〉

-요즘 국제 정세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뜻하지 않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 전쟁, 이런 강대국이 직접 개입된 전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안타까운 건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하죠. 그런데 ‘평화론’ 하면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칸트는 아시는 것처럼 평생을 자기 마을 밖에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화론, 즉 ‘영구평화론’은 머릿속에만 있는 평화론이죠. 어떤 경험과 관찰이 없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 비해서 총장님은 오랫동안 평생을 국제 활동을 하셨고요. 또 UN에도 오래 계셔서 수많은 지도자를 만나시고 각국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분쟁 현장을 직접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경험과 관찰에서 나온 평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칸트하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이 사실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21세기 들어와서 점점 더 평화롭게 되고 이 지구 자체도 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안전하게 되는데 UN이 추구하고 UN에서 결정했던 모든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질 않아요.

제가 UN 사무총장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 10년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포함해서 다 힘을 합쳐서 개도국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몇 가지 결정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전 UN 사무총장으로서는 자랑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오른쪽)과 정태영 미주동창회보 편집위원이 서울 종로구 소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사무소 현판 앞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리더 사라진 세계, 혼란 가중되는 국제 정세 여든 넘어서도 매년 30여 개국 찾는 이유는 유일한 생존 전임 UN 사무총장의 책임감 각국 지도자들에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하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미국이 주도해서 하자고 그런 건데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빠져나갔죠. 2025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기후 변화 협정에서 다시 또 2차로 빠졌어요. 취임한 날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허탈해져 버린 거죠.

거기에 더해서 UN에 많은 국제 기구가 있는데 31개 국제 기구에서 탈퇴를 합니다. 미국이. 그 다음에 UN 직속 기구가 아닌 다른 국제 기구 35개에서 나가니까 총 66개 국제 기구에서 나갔어요. 그렇게 되자 UN을 믿던 개발 도상 국가들은 아주 힘이 빠지는 거죠.”

-국제질서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국제질서가 혼란스럽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미국 같은 더 모스트 데모크라틱 소사이어티(The most democratic society), 더 모스트 데모크라틱 컨트리에서 나오고 있으니. 그게 큰, 21세기 들어서 큰 위기 중의 하나입니다. 리더가 없다. 리더리스 센추리(Leaderless century)가 되는 겁니다.”

〈리더십론〉

“제가 UN 사무총장을 10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의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를 다 털어도 그야말로 글로벌 비전을 가진 진정한 지도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리더십은 본인이 해야 되죠. 지금 지도자를 누가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 만날 때마다 'Listen carefully to the voices of your people.' 'What they really want.' 이걸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근데 이게 마이동풍(馬耳東風)..., 마이동풍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각국 지도자들을 만나시면서 느끼시는 소회는요?

“많은 지도자들이 패션(passion)은 가지고 있는데... 패션은 지나치게 많지만 컴패션(Compassion)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컴패션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야 됩니다. 남을 끌어 안는 겁니다.

제가 1962년 8월 고등학교 학생일 때 ‘아메리칸 레드 크로스 소사이어티(American Red Cross Society)’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한 50여 개국에서 학생들이 왔었고, 한국에서도 그때 네 명의 남학생과 여학생 둘 그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There are no national boundaries

in this world.' 근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바운더리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1962년에 공산 국가하고 자유 국가는 말을 안 했죠. 미국하고 소련하고는 뭐 말도 안 하고, 그다음에 소련 휘하에 있는 나라들 여러 미국 휘하...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What is more important is whether you are ready to extend your helping hand.'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게 상당히 인스파이어링(Inspiring)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젊은 고등학생의 마음에도...”

-현재 지도자들이 컴패션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하고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도자들끼리 대화가 안되는 거예요. 서로 평행선 가고 마는 거죠.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요. 리더십에서 글로벌 기준, 글로벌 레스폰서빌리티가 없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이제 진짜 미국이 컴패션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안 따라가려는 겁니다. 유럽이 안 따라가려는 거죠. 그런 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 국가의 큰 데미지이고 그건 '쉐임(Shame)'이예요. 이걸 아주 수치입니다.

사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면서 파괴된 세계를 재건하는 데 큰 원조를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당시 UN의 '온크라(UNKRA)'와 미국의 '유세이드(USAID)' 같은 기구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과 개발도상국들에 엄청난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미국 하면 그야말로 희망의... 희망의 나라고 미래 어떤 나라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그레이트(Immigrate)를 한 겁니다.

미국이야말로 그 우리가 참 꿈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미국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미국이 아니다... 미국이 비욘드 유에스(Beyond US), 에즈 어 글로벌 리더(As a global leader),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리치아웃(Reach out)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온리 위시(Only wish)는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Global leadership)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제발 미국이 좀... 같은 글로벌 리더로서 그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주 절실한, 절실한 소망입니다.”



종신이사 가입 감사합니다

‘위성의 눈’ 만들던 물리학자, 요즘은 ‘양자불교’에 푹

남가주 김홍묵 종신이사

남가주 동창회의 원로인 김홍묵(문리대 물리학과 60) 동문이 미주동창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종신이사 가입비 3000달러를 보내왔다.

“미주동창회보를 상당히 오랫동안 봐왔는데, 근래 들어 미주 전역의 다양한 소식과 훌륭한 성취를 이룬 동문들을 많이 소개하는 것을 보며 미주동창회의 더 큰 발전을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김홍묵 동문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인문학 교양 강좌인 LA 아크로(ACRO) 포럼 인문산책을 이끌어오고 있다. 여름·겨울 방학 기간 한 달씩을 제외하고 매주 한 차례씩, 20년 넘게 이어온 강좌는 어느덧 500회를 훌쩍 넘겼다. 문학, 미술, 영화, 물리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 섭외부터 동문과 지역사회 대상 강연 홍보, 강연 진행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친다.

최근에는 칼스테이트 롱비치 마케팅학과 교수인 송명국(철학과 90) 동문이 ‘AI와 장래의 직업’을 주제로 강연했고, 이원익(해양생물학과 73) 동문이 ‘소용돌이의 한국 현대사-한국 역대 대통령 열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산에서 한시를 읊으며 함께 등산을 즐기던 남가주 동문 몇 명이 뜻을 모아 2014년 소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한때는 40명 가까이 참여하는 교양 강좌로 성장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줌(Zoom)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인문학 강좌가 많다 보니 열기가 다소 식어 현재는 10여 명이 온라인에서 만납니다.”

김 동문은 지식뿐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도 동문 사회를 묶어왔다. 그는 서울대 남가주 동문 합창단 창단의 주역이자 핵심 멤버로, 20년 가까이 매주 모여 2시간 넘게 노래를 연습해 왔다. 합창단은 매년 한 차례 정기 공연 무대를 올리며 동문 사회에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요즘 그가 가장 몰두하고 있는 분야는

역설적이게도 종교와 과학의 만남이다. 취미였던 골프 모임까지 줄여가며 매달 한 번씩 열리는 독서회에서 영국의 불교철학자 그레이엄 스페셜의 저서 『퀀텀 부디즘(Quantum Buddhism)』을 공부하고 있다. 물리학자로서 실험실 연구만으로는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들이 2500년 전 불교 철학과 맞닿아 있음을 발견했다는 그는, 기존 번역의 아쉬움을 느껴 동료 10명과 함께 책을 새롭게 번역하며 2년째 치열한 학문적 토론을 벌이는 중이다. “불교를 잘 몰라 쉽지 않지만 너무나 재미있다”는 그의 말에서는, 여든이 넘어서도 새로운 지적 세계를 향한 탐구를 멈추지 않는 학자의 모습이 엿보였다.

김 동문은 1964년 서울대를 졸업한 뒤 공군 장교로 4년 반 복무했으며, 1968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UCLA에서 물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와 USC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미국 공학계 핵심 기관들을 두루 거쳤다. 휴스턴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시작으로, CIA 인공위



성 제작사로 유명한 TRW, 에어로젯 일렉트로닉스 시스템을 거쳐 마지막으로 젠코프(GEN CORP)에서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핵심 부품인 망원경 렌즈 개발에 참여한 뒤 은퇴했다.

또한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장과 재미한인과학기술협회(KSEA) 남가주 지부 회장을 역임하며 미주 한인 이공계 인재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에도 기여했다.

결혼 60주년 윤성희·나명숙 사대 동문 부부 광속처럼 흐른 세월, 아내에게 바치는 헌시

북가주 윤성희(사대 58) 동문이 지난 5월 하순 결혼 60주년을 기념해 지은 시를 보내왔다. 윤 동문은 동문 부부로 부인 나명숙 씨는 사대 61학번이다.

윤 동문은 시를 보내면서 “진주여고 서울대생과 경남고교 서울대생이 만나 60년을 살면서 하버드대 학부 아들 둘에 프린스턴대 학부 손자 둘을 봤다”며 “긴 세월이었지만 광속의 시간처럼 흐른 짧은 인생, 보람은 열매이고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글을 덧붙였다.



윤성희·나명숙 사대 동문 부부의 1966년 5월 결혼식 모습. 주례는 사대 학장을 지낸 윤태림 숙명여대 총장이 맡았었다.

해마다 새장가들고

윤성희

마로니에 봄 향기 속에
대학 교정 풀밭에서 속삭인
우리들의 이야기

꿈많은 소녀, 급우, 애인, 아내, 할매, 영원한 친구
동고동락 60년 플러스
해마다 새장가들고 시집 또 오고

수원 저수지 언덕 위 벤치에 앉아
붕어빵 하모니카 60년대 ‘재건 데이트’
조촐하고 조용했지만

청사초롱 맑은 눈
따뜻한 손
포근한 가슴

고난과 기쁨의 교차로에서
두 손 잡고 기도하던 때 순간
꿈엔들 잊을까

잔잔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사랑

➔ (여성 인권)

-화제를 여성 인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권 운동에 관해서 저는 평소에 울스틴크래프트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여성 사상가, 작가인데요. 그가 주장하는 것은 여성이 자라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스틴크래프트는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지성 대신 '맹목적인 순종'과 '외모 가꾸기'만을 강요하며, 신체적·정신적 무기력함을 미덕으로 포장해 양육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UN이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권이죠. 그중에서도 여성의 지위 향상, 이것도 제가 있을 때 UN 역사상 처음으로 'UN 위민(UN Women)'이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칠레 첫 여성 대

통령이었던 미첼 바첼레트를 유엔여성(U.N. Women) 기구 대표로 임명했어. 그때 세계적으로 뉴스를 많이 탔죠. 이분은 그 후 칠레 대통령을 한번 더 했어. 지금은 UN 사무총장 후보로 올라와 있죠.

제가 한국 외무부 장관 때 처음으로 여성을 국장에 기용했습니다. 그 분이 바로 강경화 국장이예요. 나중에 첫 여성 외무부 장관, 현재는 주미 대사를 하고 있지요.”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가지시게 되었나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인권에 관해서 수필을 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썼는데... 우리 동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딸 나면 대접도 못 받고, 아들나면 동네가 벽적거리고, 제가 그런 걸 쓴

겁니다. 어린 소견에도, 동네에서 어느 아저씨가 ‘또 딸이야, 딸이야’하고 화를 내고 문을 박차고 나가고, 아주머니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인권에 관한 여성지위향상에 관한 것이 머리에 박혔죠. 그래서 그런 게 그 이후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UN에 들어와서 여성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때 반발이 꽤 있었어요. 돈이 없는데 무슨 새로운 기구를 만드느냐. 그러나 제가 하나 완전히 만들었어요.”

〈험블(Humble)〉

“이제 저도 이제 80이 넘어서 82가 돼서 있으니까 이제 점점 옛날도 생각하고 이제 미래도 생각하고 저가 뭐 몇 년을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제가 느낀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험블

(Humble)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전 그거를 평생 그 저 모토로 삼고 살았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험블 마인드니스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드물어요. 참 드롭니다.

전직 UN 사무총장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유일합니다. 제 전임자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세상을 많이 다닙니다. 일 년에 30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이제 잘 열심히 들으라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거를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다큐멘터리가 2026년 10월 14~15일에 보스턴에서 상영된다. 반기문 총장도 다큐멘터리 상영에 즈음하여 보스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 및 시간은 추후 고지 예정임.

최근 AI 활용이 대세가 되면서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 뿐만 아니라 각 지부에서도 시니어 동문들을 위한 AI 활용 강연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지난 4월 시카고 골든클럽이 'AI 비서와 함께 하는 100세 시대 건강 경영' 강연을 한 데 이어 5월에는 뉴욕 골든클럽이 '일상 속의 AI'를 주제로 강연을 했고 남가주에서는 김홍

묵(문리대 60) 동문이 이끄는 LA 아크로 포럼 인문산책이 'AI와 장래의 직업'을 주제로 줌 강연을 했다. 6월 초에는 조지아주 동창회가 'AI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는데 100명에 가까운 동문들이 참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뉴욕 골든클럽의 5월 강연 내용을 소개한다.

동문들의 뜨거운 'AI 배움 열기'... 각 지부 강연 잇따라

AI를 주제로 뉴저지 힐튼 가든 호텔 강의실에서 열린 뉴욕 골든클럽 주최 제3회 월레 마스터 클래스에는 70여 명의 동문이 몰려 AI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했다. AI가 이미 인간의 삶 전반을 바꾸고 있지만, 시니어 세대는 여전히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행사의 필요성은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다.

강의는 전자공학과 83학번이며 서울대 젊은 동문 네트워크 EDGE Committee 위원장으로, 벨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가나 협력을 기반으로 가나에 스타트 업을 개발, 운영하는 Vilacesti 사업을 추진 중인 양경호 박사가 맡았다. 그는 글쓰기·영상 제작·사업 기획·의료 상담·여행 준비 등 인간의 사고와 생산성을 확장시키는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하며 AI의 분야별 활용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 챗GPT·코파일럿·제미나이 설치를 도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회원들은 이날 강의가 너무 좋았으며 다음 세미나에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경호 박사가 진행한 '일상생활 속의 AI' 강연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 AI와 우리의 일상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구글 맵,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넷플릭스 등 다양한 서비스 속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궁금한 점을 구글에 검색했지만, 이제는 제미나이(Gemini) 같은 AI에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대가 됐다.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스스로 실행하며 우리를 돕는 '똑똑한 개인 비서' 혹은 '도서관의 사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2. AI의 발전 속도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뉴욕 골든클럽은 지난 5월 개최한 제 3회 마스터 클래스 '일상 속의 AI'를 주제로 한 강연에는 동문 70여 명이 참여해 AI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뉴욕 골든클럽 마스터 클래스 '일상 속의 AI'

챗GPT·코파일럿·제미나이 실습하며 큰 호응

동문 70여 명, AI 활용 경험 나누며 새로운 도전

AI 혁신은 과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보급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 발달과 함께 사용자 경험(UX/UI)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음성이나 간단한 타이핑만으로 직관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주요 AI 기술 용어 정리

양 박사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AI 개념을 소개했다.

▶에이전트 AI (Agent AI): 단순 대화를 넘어 회의 일정 조율, 논문 작성, 여행 계획 수립 등 사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AI다.

▶피지컬 AI (Physical AI):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 스마트 팩토리 로봇 등 물리적인 장치 내부에 탑재되어 행

동하는 AI다. 예로 한국 식당에서 흔히 보는 서빙 로봇을 언급했다.

▶생성형 AI (Generative AI):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오 등 새로운 콘텐츠를 직접 생성하는 AI로, 챗GPT와 제미나이가 대표적이다.

▶멀티모달 AI (Multi-modal AI):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동시에 이해하고 생성하는 고도의 AI 기술이다.

4. 실생활 활용 사례 및 유의점

AI는 이메일 작성 및 교정, 복잡한 일정 관리, 여행 계획 수립, 개인 튜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양 박사는 한 회원의 실제 경험으로 IRS 세금 면제(501C3) 신청 과정을 AI의 도움을 받아 4주 만에 해결

한 사례를 공유하며, 법률이나 의료 상담에서도 큰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I 사용 시 주의할 점도 강조되었다.

▶검증의 필요성: AI는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항상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오래된 데이터를 제공할 때도 있다.

▶최종 판단은 인간의 몫: AI는 도구일 뿐이며,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과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한다.

▶보안 주의: 비즈니스나 금융, 의료 기록을 업로드할 때는 개인정보와 계좌 번호 등을 가리거나 이름을 변경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5. 결론 및 향후 일정

AI는 우리 삶의 효율성을 수천 배 높여줄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다. 비록 유료 버전(월 10~20달러 선)이 정보 보존과 성능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글=여주영 골든클럽 명예회원
전 뉴욕한국일보 주필

서울대 뉴욕 북클럽 2주년과

이희만 동문의 「꽃들의 혁명」 출판을 축하합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회장 황효숙 · 임원 일동

뉴욕 북클럽 2주년 기념 세미나, 45명 참여 속 성황

이희만 동문 한영 시집
《꽃들의 혁명》 사인회도

지난 5월 22일, 서울대 뉴욕 북클럽은 2주년 기념 세미나와 이희만 동문 시집 사인회를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개최했다. 북클럽 멤버, 미국 시인, 문인, 친지 등 45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신응남(농대 70) 대표는 환영사에서 “고국을 떠난 타지에서 생업을 뒤로하고 독서에 몰입한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2년 전에 몇몇 동문이 뉴욕에 지성인의 정체성을 세우는 뜻을 모았고, 그간 《코스모스》, 《사피엔스》, 키케로의 《의무론》, 《장자》, 《도덕경》 등을 섭렵했다”라며 북클럽 모임에 많은 동문의 동참을 당부했다.

1부 특별 강좌에서는 연봉원 변호사(불문 61·수필가)가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내 이름은 빨강》을 통해 오르한 파묵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해설했다. 파묵은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점차 잊혀가는 동양적·이슬람적 문화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에 담아낸 작가다.

미술을 전공한 그는 사건을 그림처럼 세밀하게 묘사하거나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기법도 사용한다. 작중 ‘빨강’은 생명, 열정, 사랑을 상징하는 동시에 죽음과 피를 의미하기도 하며, 이슬람 전통 세밀화의 화려함과 변화하는 시대를 수용하려는 예술가들의 뜨



지난 5월 22일 열린 서울대 뉴욕 북클럽은 2주년 기념 세미나 겸 이희만 동문 시집 사인회에 참석한 동문과 축하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봉원(앞줄 맨 왼쪽) 동문이 오르한 파묵의 작품 세계를 해설했고 이희만(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동문은 시집 사인회를 가졌다.

거운 고뇌를 대변한다. 파묵은 과거 튀르키예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비판하며 아르메니아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진보주의자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다.

2부 순서로는 이희만 시인(간호대 70)의 한영시집 《꽃들의 혁명》 사인회가 이어졌다. 시인이자 발행인인 스탠리 바칸(Stanley Barkan)과 김송희 시인의 축사와 시 낭송이 행사를 빛냈다. 이희만 시인은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의 말을 인용해 “나만의 생존을 넘어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돕는 행동이 문명의 시작”이라며 “컴퓨터나 스마트

폰을 잘 쓰는 것이 문명의 척도가 아니라 고난에 처한 동료를 인식하고 도움을 손을 내미는 것이 문명의 첫 신호이며 그 공감의 힘이 지금까지 인류 문명을 지켜온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나는 과연 나의 아픔을 넘어 상처 입은 영혼을 부축해 준 일이 있는가? 우리는 문명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초대의 말을 마무리 지었다.

이 동문의 시집은 현재 아마존(Amazon)을 통해 판매 중이며 미국 의회 도서관과 맨해튼 ‘시인의 집(Poets House)’에 영구 소장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행사의 대미는 테너 양군식(음대

82) 동문이 장식했다. 그의 고품스러운 축가 <청산에 살리라>로 현장 분위기를 한껏 무르익었다.

3부 오찬에서는 와인을 곁들인 풍성한 9코스 중화요리가 제공돼 참석자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후원에 참여해 준 최한용(농경제 58) 선배 동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사회자로 나선 천흥규(상대 84), 행사 내내 사진 촬영으로 봉사한 김봉중(미대 84), 송웅길(대학원 69) 멤버들은 모처럼 풍성한 행사를 치르며 북클럽의 밝은 미래를 예감하는 듯 입가에 시종 환한 미소를 띠었다.

글·사진=서울대 뉴욕 북클럽 제공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우리 곁에 다가온 미래

김량국 동문이 전하는 창업네트워크 소식

“매일 오후 4시에 서재 블라인드를 내려줘”
‘AI 비서’ OpenClaw 구조와 활용 사례 공유

지난 2월, 서울대 미주동창회 창업네트워크(기업넷)의 정기 모임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모임에서는 김량국(사대 92) 동문이 ‘OpenClaw의 원리와 Agentic AI의 미래’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며, AI 에이전트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김 동문은 Oak Bioinformatics를 운영하며 AI 에이전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발표는 인간 비서의 업무 방식에서 시작해, 이를 AI 에이전트로 구현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AI 에이전트의 핵심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계획(Plan)하고 실행(Execute)하며 검토(Review)하는 자율적인 작업 수행 능력이다. ChatGPT가 2022년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2025년의 Claude Code는 프로그램 코드 작업을 수행하고, OpenClaw와 Hermes 같은 AI 에이전트는 사용자 입력 없이도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김 동문은 OpenClaw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다.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채널, 메모리, 스케줄러가 연결된 시스템이다. 특히 ‘툴(Tool)’ 개념을 통해 AI가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보여줬다. 예를 들어 “서울 날씨가 어때?”라는 질문에 AI는 날씨 정보 툴을 호출하고, 받은 데이터를 자연스러운 언어로 변환해 답변한다.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김 동문은 자신의 AI 에이전트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뉴스레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과정을 설명했다. “매달 첫 월요일마다 뉴스레터 내용을 물어보고, 내가 내용을 주면 템플릿에 맞춰 이메일을 생성해 기업넷 이메일 리스트로 발송해줘”라는 요청에 AI 에이전트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하며, 스케줄까지 설정한 것이다. 또 다른 사용자의 WhatsApp을 통해 “Dobby, 매일 오후 4시에 서재 블라인드를 내려줘”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집안의 모든 자동화를 제어하는 사



OpenClaw는 최근 가장 핫하게 주목받는 오픈소스 ‘자율형 AI 비서’로 개인 노트북에 설치해 두면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파일 정리, 이메일 발송 등 일상적인 컴퓨터 작업부터 스마트홈 제어까지 일상 업무를 알아서 수행해 준다

례도 소개되었다.

더 흥미로운 건 차세대 AI 에이전트 프로젝트인 Hermes였다. Hermes는 “사용자와 함께 성장하는 에이전트”로, OpenClaw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용자가 자주 쓰는 작업들을 스스로 재사용 가능한 툴로 만들어 자신의 능력을 진화시킬 수 있다.

김 동문은 AI 에이전트가 과학 연구 자동화, 웹 자동화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점도 지적했다. 모든 것을 텍스트로 변환해야 하고, LLM이 완벽을 보장하지 못하며, 근본적으로 에이전트는 영화 메멘토의 주인공과 같은 기억상실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석자들은 AI 에이전트의 실용성, Hermes의 ‘함께 성장하는’ 특성,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일상과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열띤 질의응답을 나눴다.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창업네트워크는 이처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동문들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며, 회원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 정기 모임은 6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창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문의: rkim@oakbioinformatics.com

팩스 아메리카의 종말, 새로운 다극화의 시대로

SNUAA 5월 포럼

미국 우선주의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강사 김완진(상대 72)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완진 교수는 강연을 시작하며 세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첫째, 2차 대전 이후 현재까지 세계 경제질서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둘째, 트럼프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성공하고 그 결과 미국의 패권은 유지될 것인가? 셋째, AI 혁명이 세계경제질서에 미칠 영향? 강연은 이 핵심 질문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김 교수는 서구 문명이 세계를 주도하게 된 출발점으로 약 250~300년 전의 역사에 주목하면서 그중에서도 1776년은 단순한 미국 독립의 해를 넘어 정치, 경제, 기술 혁명이 동시에 맞물린 ‘문명사적 폭발점’으로 규정했다.

정치적으로 미국 독립은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라는 개념을 정착시켰다.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삼권분립과 헌정 체제는 정부 비대화를 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서구 정치 질서의 토대가 됐다는 설명이다.

경제적으로는 같은 해 출간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자유무역 질서의 설계도로 평가했다. 스미스는 국가 간 거래를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실이 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이익을 얻는 ‘윈-윈 게임’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관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무역 적자는 부를 빼앗기는 것”이라는 논리는 18세기 중상주의적 사고에 가깝고, 현대 경제학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아담 스미스가 이미 250년 전에 극복한 사고방식이 재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750년경 시작된 산업 혁명 역시 서구 문명의 성장 기반이었다. 화석연료 기반의 기계 동력이 생산성을 급격히 끌어올렸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지수 성장 구조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지수적 성장이 누적되며 서구는 19세기 이후 중국을 포함한 기존 문명권을 경제적으로 압도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서구 문명의 최종 주자로서 유일 패권 국가의 지위를 굳혔다.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GATT와 이후 WTO로 이어지는 자유무역 체제가 구축됐고, 달리는 세계 기축통화가 됐다. 미국은 동맹국의 재건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질서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했다.

김 교수는 이 시기를 “안보를 위해 경제적 비용을 지불했던 시대”라

지난 5월 23일 열린 SNUAA 5월 포럼에서는 김완진(상대 72)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초청돼 ‘미국 우선주의와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완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초래한 보호무역 강화와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을 규칙 기반 국제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변화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격변을 단순한 정책적 결과가 아닌 1776년 이후 서구 문명의 성장 과정, AI 기술혁명 그리고 자본주의의 변화 등 문명사적 대전환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조망했다.

김 박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UC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31년을 재직했다.



지난 5월 23일 열린 SNUAA 5월 포럼에서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미국 우선주의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1776년, 정치·경제·기술 혁명이 만난 출발점

안보 위해 경제적 비용 지불한 팩스 아메리카나

트럼프 현상, 기존 질서 모순이 낳은 약탈적 패권

K-컬처 영향력, 인간적 유대의 대안으로 떠올라

고 설명했다. 냉전기 미국은 소련 봉쇄라는 안보 목표를 위해 자국 산업 일부를 희생하면서까지 동맹국 성장을 지원했고, 한국과 일본에도 수출 쿼터 등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 문명의 최종 체제라는 낙관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김 교수는 “승리의 순간 내부 모순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절대적 몰락이 아니라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진행된 자연스러운 평준화 과정으로 해석했다.

1945년 세계 GDP와 제조업의 약 절반을 차지했던 미국 비중은 현재 25% 수준까지 낮아졌다. 일본의 부흥, 한국·대만 등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제조업 중심축 이동이 그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미국이 제조업 공동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금융과 IT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했지만, 제조업 일자리의 해외 이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계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앙구스 디턴의 연구를 인용하며, 김 교수는 오늘날 미국이 교육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계급사회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미국 사회는 상위 1%의 초부유층과 CEO 집단, 대기업 전문직 중심의 상위 10%, 안정적 중산층 30%, 그리고 소외된 하위 60%로 분화됐고 이

같은 구조는 인도의 카스트처럼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됐다.

특히 약물중독·알코올 의존·자살 증가로 인한 기대수명 하락 현상인 ‘절망사(Deaths of Despair)’는 제조업 쇠퇴로 삶의 존엄성을 잃은 백인 노동계층의 위기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현상을 세계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기존 질서 모순이 낳은 결과라고 규정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부르며 동맹국을 압박하고, 감세와 이민 제한 정책을 통해 미국 중심 이익 극대화를 추구해왔다. 학계에서는 이를 동맹의 이익까지 흡수하는 ‘약탈적 패권(Predatory Hegemony)’으로 해석한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의 인공지능(AI) 혁명을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선 ‘2단계 혁명(Scale-up Version)’으로 규정했다. 과거 산업 혁명이 인간을 육체노동에서 해방시켰다면, AI 혁명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정신 노동까지 대체하며 지수적(Exponential)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여기서 김 교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실존적 위기라는 날카로운 역설을 제기했다. AI와 자동화로 인해 생산의 한계 비용이 제로(0)에 수렴하는 ‘기술 유포피야’가 도래하더라도, 대규모 실업으로 인해 대중이 구매력을

상실하면 자본주의의 순환 고리가 끊어진다는 지적이다. 즉, 로봇이 아무리 물건을 싸고 완벽하게 생산하더라도 이를 소비할 사람이 없는 ‘수요 상실’ 사태가 발생해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다.

현 시점은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예견한 기술적 특이점과 영생의 꿈이 다가오는 동시에,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경고한 고도로 기계화된 사회 속 ‘쓸모없는 계급(Useless Class)’의 탄생, 나아가 스티븐 호킹이 우려했던 인류 멸망론까지 공존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기로라고 진단했다.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한층 더 심도 있는 통찰이 오갔다. 하용출 위싱턴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소장은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와 공동체 분열의 심각성을 “망한 소련, 망든 미국”이라는 강렬한 비유로 압축해 동문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여전히 군사·기술 분야 최강국이지만, 앞으로는 유일 패권국이 아니라 다극화된 세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중국·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문명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공동체적 가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K-컬처 등 문화적 영향력은 서구 사회가 상실한 인간적 유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초지능 AI 기술이 몰고 올 기술적 쓰나미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 통제와 기본소득 도입 등 기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훈육(Nurturing)하고 부를 공정하게 나누는 ‘도덕적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세계 경제 질서의 미래를 구원할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갤러리에 가득 찬 아름다운 선율부터 백수 축하까지 남가주 동문들이 함께 한 특별한 ‘봄맞이 콘서트’

5월의 문턱에 선 지난 2일, LA 한인타운의 샤토 갤러리에는 봄의 정취를 머금은 선율이 은은하게 퍼졌다. 서울대 동창회가 마련한 ‘스프링 갈라’ 봄맞이 콘서트에는 200여 명의 동문들이 갤러리를 가득 채우며, 계절의 향기를 함께 나눴다.

이날 무대에는 국제 콩쿠르와 주요 공연에서 활약 중인 음대 동문들이 올라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다.

제갈소망(피아노), 김정아(바이올린), 김원선(첼로)을 비롯해 김주혜(소프라노), 채주원(메조소프라노), 이규영(테너), 장진영(베이스) 등이 클래식과 성악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를 펼쳤다.

공연의 문은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알레그로 콘 브리오’로 힘차게 열렸다. 이어 슈만의 ‘아름다운 5월에’와 김효근의 ‘첫사랑’ 등 봄의 서정을 담은 곡들이 이어지며 객석에는 따뜻한 여운과 함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공연의 절정은 김동진의 가곡 ‘목련화’였다. 네 명의 성악가가 빚어낸 화음은 5월의 정취를 절정으로 끌어올렸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이번 행사는 법대 동창회(회장 김선거)가 주관하고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양수진)가 적극 후원, 기대 이상의 관심과 참여로 전 동문이 함께하는 봄의 축



남가주 서울대 동문들이 지난 5월 2일 LA 한인타운의 샤토 갤러리에서 동창회가 준비한 ‘스프링 갈라’ 봄맞이 콘서트를 즐기고 있다.

제가 됐다.

공연의 여운은 2부 행사로 이어졌다. 동문들은 인근 한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친교의 시간을 나누며, 구순을 맞은 동문과 백수를 맞은 가족을 축하하는 따뜻한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생일 케

크를 나누는 순간마다 객석에는 웃음과 박수가 어우러지며, 봄날의 정취를 한층 깊게 물들였다.

최진석 법대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이기준(법대), 박종수(수의대) 등 원로 동문들과 김자성(의대) 등 후

원 동문들이 소개되며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과 계절, 그리고 동문의 정이 어우러진 ‘5월의 기억’으로 오래 남을 봄날의 한 장면을 완성했다.

캔자스의 푸른 하늘 아래, 몸도 마음도 살찌운 봄소풍

하트랜드 지부

가을만 천고마비의 계절이 아닙니다. 캔자스를 다녀가신 많은 분들이 이곳의 봄과 가을 하늘이 유난히 아름답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캔자스의 3대 자랑’으로 하늘, 오이, 그리고 게 뷔페를 꼽으시는데,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에서 게 뷔페가 최고라고 하시니, 앞서 말씀하신 다른 항목들의 신빙성까지 살짝 흔들리긴 합니다.

그런 의구심(?) 속에서도 저희는 몸과 마음을 함께 살찌우기 위해 지난 4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헤리티지 파크(Heritage Park) 쉼터에서 봄 피크닉을 열었습니다.

삼겹살을 메인으로 각종 반찬과 과일, 케이크까지 곁들인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고, 마음의 풍요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몸의 변화(?)만큼은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 참석자들이 많아 한층 더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되었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모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우연히도 호민선 선배님(상대59)의 80세 생신과 겹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직접 준비해 오신 케이크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지난 4월 25일 헤리티지 파크에서 봄 피크닉을 한 하트랜드 지부 동문들이 기념 촬영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있었습니다.

서울대 하트랜드 지부 동문 모임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회자(네, 접니다)의 지목을 받은 두 분이 나와 훌라후프 오래 돌리기 대결을 펼쳤고, 경기에 앞서 누가 이길지를 맞추는 깜짝 이벤트도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선물은 없었지만, 든든히 먹은 고기

를 기분 좋게 소화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어쩌면 당연하게도-여자 참가자들이 훨씬 오랫동안 훌라후프를 돌리는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학번이 높아질수록 몸에 ‘기름칠’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웃픈(?)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고기를 굽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살신성인의 자세로 끝까지 바비큐를 책임져 주신 진찬우 동문(사회과학대 07학번)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음식과 웃음, 그리고 따뜻한 교류가 어우러진 이번 봄 피크닉은 그렇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글=이주현(미대 92) 지부 회장

웃음 가득 게임에 야드세일까지 ... 즐거운 봄 아우회

워싱턴 DC 지부

워싱턴 DC 지부 동문회는 지난 5월 2일(토) 오전 11시, 버지니아 비엔나(Vienna)에 위치한 노토웨이 파크(Nottoway Park)에서 '동문 가족 봄 피크닉'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신록이 막 짙어 가기 시작한 초봄의 공원은 연둣빛 생기로 가득했지만, 이날만큼은 오리털 파카와 두꺼운 외투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쌀쌀한 날씨였다. 그러나 차가운 날씨마저 무색하게 만든 것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동문 가족들의 따뜻한 웃음과 반가운 인사였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선후배와 동기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는 정겨운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함께 자라난 가족과 자녀들까지 어우러지며 공원은 마치 작은 공동체 축제의 장처럼 활기를 띠었다.

이날 행사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도시락 점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되었다. 동문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봄 공기의 싱그러움을 느끼며 담소를 이어갔고, 오랜 시간 이어온 동문 사회 특유의 친밀감과 따뜻한 연대감이 자연스럽게 묻어났다. 단순한 야외 모임을 넘어,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공동체의 정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다.

식사 후 이어진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국 전통 놀이인 투호를 비롯해 다트 게임, 농구 골대 공 넣기, 그리고 미국 야외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콘홀(Cornhole) 게임까지 준비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동문들은 라플 티켓을 이용해 각 게임에 참여하며 승부를 겨루었고,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곳곳에서 웃음과 환호가 터져 나왔다. 특히 어린 시절 운동회를 떠올리게 하는 순수한 열기 속에서, 참석자들은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시간을 만끽했다.

게임을 통해 받은 경품 또한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훈훈하게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경품으로 받은 추억의 간식인 빵튀기 과자를 서로 나누어 먹으며 웃음을 나누었고, 소박하지만 정겨운 풍경 속에서 세대를 초월한 유대감



워싱턴DC 지부 동문들이 지난 5월 2일 노토웨이 파크에서 열린 '동문 가족 봄 피크닉'에 참여해 기념 촬영을 했다.



이날 아우회에는 한국 전통 놀이인 투호를 비롯해 다트게임, 농구 골대 공 넣기, 콘홀까지 남녀노소가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게임이 준비돼 동문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동문 기부 물품들 판매해 동창회 운영비로 쌀쌀한 날씨에 갓 구워낸 추억의 호떡 인기

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며, 동문 공동체 특유의 인간적인 온기를 다시금 느끼게 했다.

특히 이날의 백미는 예상 밖의 쌀쌀한 날씨 덕분에 더욱 인기를 끌었던 즉석 호떡과 따뜻한 커피 판매대였다. 역시 라플 티켓으로 구입하는 갓 구워낸 호떡의 달콤한 향기는 공원 전체를 감싸며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따끈한 커피 한 잔으로 몸을 녹이려는 동문들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호떡과 커피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오랜만에 만

난 동문들의 정담을 더욱 깊게 이어주는 매개가 되었다.

한편 행사장 한편에서는 동문들이 각 가정에서 기증한 물품들로 마련된 '야드 세일(Yard Sale)'도 함께 진행되었다. 커피메이커와 골프 용품, 운동화와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들이 진열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필요한 물건을 서로 나누고 다시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 정신과 나눔의 의미가 더욱 빛났다. 이날 야드 세일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향후 지부 운영에 사용될 예정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워싱턴 DC 지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동문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야말로 우리 동문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소중한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대와 전공, 직업을 넘어 동문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가족처럼 연결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봄 피크닉은 단순한 친목 행사를 넘어, 타지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문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동체의 따뜻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더욱 선명하게 빛났던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은, 이날 노토웨이 파크에 모인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따뜻한 봄날의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취재=한정희(미대 81 · 편집위원)

남가주·워싱턴주 동창회, 차세대 위한 '여름 로봇 캠프' 개최

한홍택 동문, 로봇 100여대 기증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와 워싱턴주 동창회가 뜻을 모아 각 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차세대들을 위한 '여름 로봇 캠프(Summer Robotics Camp)'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분야인 로봇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 어린이들과 동문 자녀 및 손주들에게 새로운 과학적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남가주 총동창회가 주관하고 공동 동창회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가 공동 주최하는 남가주 캠프

는 오는 7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5일간 세리토스에 위치한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4~6학년 초등학생이며, 참가비는 학생당 250달러다.

특히 이번 캠프는 단순히 로봇을 가지고 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컴팩트한 교육용 로봇 '햄스터(Hamster)'와 스크래치 블록 코딩을 결합한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캠프 실습에는 한홍택(공대 60) 동문이 기증한 로봇 100여대가 적극 활용된다.

주최 측은 "초등학생들에게는 로봇과 코딩의 원리를 깨닫는 멋진 시간을, 멘토로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는 로봇 지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상생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어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의 전문적인 지도 하에 열리는 워싱턴주 동창회 로봇 캠프는 오는 8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5일간 시애틀한국교육원에서 개최된다.

한편, 이번 캠프의 기반을 마련한 한홍택 박사는 "로봇 캠프 개최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지역 지부들에도 로봇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캠프가 남가주와 워싱턴주를 넘어 미 전역 한인 차세대들을 위한 과학 교육 네트워크로 확장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젊어진 봄 피크닉 ... 90년대 이후 학번 대거 참여

미네소타 지부

미네소타 동문들은 지난 5월 9일 블룸INGTON에 있는 웨스트 부시 레이크 파크(West Bush Lake Park)에서 봄 피크닉을 열었다. 약 4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모여 친교를 나누며 다양한 바베큐를 즐겼다.

이번 봄 피크닉에는 동문회 행사 때마다 항상 열심히 참석하는 동문 외에도 오래간만에 행사에 참여한 반가운 얼굴들과 젊은 동문들도 많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40여 명의 참석은 미네소타 지부 규모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참석율이었다. 참석인원을 분석해 보니 3분의2 이상이 90년대 이후 학번의 동문과 가족들이어서 최근 행사 중 가장 젊은 모임이 된 듯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올해 새로 시작



지난 5월 9일 웨스트 부시 레이크 파크에서 열린 봄 피크닉에 참석한 미네소타 동문들이 함께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한 소규모 그룹 모임이 도움을 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미네소타 대학 교수 동문들과 만나서 학생 동문들의 활발한 행사 참여를 당

부하고 젊은 교수들의 소규모 모임을 홍보한 덕에, 교수님들이 많이 홍보해 준 것 같다.

이번 봄 피크닉에 참석했던 동문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 다음 행사에도 다시 참석해주기를 바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글=문성인(공대 88) 지부 회장

샌디에고 지부

동문들과 함께 필드 걸으며 '즐거운 하루'

샌디에고 동문회는 지난 5월 9일, 화창한 날씨와 선선한 기온이 어우러져 라운딩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올해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임춘수(의대 57) 동문을 비롯해 김태한(의대 01) 동문까지 총 22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여섯 조로 나뉘어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진행했으며, 쾌적한 날씨와 훌륭한 코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함께해 더욱 뜻깊고 기억에 남는 하루를 보냈다.

올해 역시 다양한 시상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경기의 재미를 더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작년에 이어 박준식(공대 89) 동문이 캘러웨이 기준 74타, gross 82타로 챔피언에 올랐으며, 메달리스트는 송오석 동문이 차지했다. 또한 시니어 부문과 LPGA 부문 등 다양한 시상을 통해 참가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뜻



지난 5월 9일 열린 골프대회에 참여한 샌디에고 동문들이 함께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깊은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동문들과 함께 필드를 걸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의미였다. 라운딩 후 이어진 뒤 풀이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이창종(사대 83) 동문이 와인 4병을 기부해

와인과 함께 3코스로 준비된 저녁을 즐길 수 있었다.

글=김상태(공대 96) 지부 부회장

필라델피아 지부

춘계골프대회 1등은 홍요욱(약대 64) 동문

김영석 회장, 식사비 후원

필라델피아 동창회가 지난 5월4일 화창한 날씨 가운데 벅스 클럽(The Bucks Club)에서 춘계골프대회를 열었다.

경기 결과, 영예의 1등은 홍요욱(약대 64) 동문이 차지했다. 이어 2등은 전무식(수의대 61) 동문, 3등은 이흥일(상대 70) 동문에게 돌아갔다. 호쾌한 샷을 선보인 장타상은 이종태(사대 71) 동문, 정교한 샷을 뽑낸 근접상은 최유섭(약대 68)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경기 후에는 오미자(Omiza)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즐기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석 동창회장이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비 전액을 후원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동문회 측은 이번 골프 대회에 참가해 자리를 빛내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필라델피아 동문들이 지난 5월 4일 열린 골프대회에 참가해 기념 촬영을 했다. 노익장을 과시하며 라운딩을 즐기고 있는 동문들.





말리의 창작 산실이 된 여름 오두막들. (맨 왼쪽부터) 오스트리아 슈타인바흐 아터제(1893~1896), 오스트리아 마이어니히 뵘르터제(1900~1907), 이탈리아 토블라흐(1908~1910). 말리는 여름 휴가 기간 자연 속에 틀어박혀 곡을 썼다.

말리 음악의 산실, 여름 오두막 세 곳을 거닐다

김영석(음대 74) 동문의 음악기행

2019년 여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거장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말리의 연가곡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Kindertotenlieder)>를 감상하며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이 곡은 구스타프 말리가 1901년에 시작하여 1904년에 완성한 체임버 오케스트라 반주의 연가곡(전 5곡)으로, 시인 프리드리히 뤼케르트가 자신의 죽은 두 아이를 추모하며 쓴 시에서 가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 이 놀라운 음악들이 탄생한 실제 장소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유럽 여행을 계획하시는 동문들께 말리의 흔이 깃든 이 특별한 장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리의 음악을 이해하는 두 가지 열쇠는 ‘자연’과 ‘걷기’입니다. 1880년 빈 음악원(Vienna Conservatory)을 졸업한 청년 말리는 인생의 행로를 고민하며 빈을 출발해 베르히테스가덴, 바그너의 성지 바이로이트, 뉘른베르크까지 이어지는 600km의 도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루 평균 30km를 걷는 고된 여정 속에서 그는 자연과 대화하며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찾아 나갔습니다.

당시 유럽 음악계는 1876년 <니벨룽의 반지(Der Ring des Nibelungen)> 4부작 초연을 기점으로 바그너라는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청년 시절 바그너의 흔적을 쫓던 이 경험이 말리로 하여금 낭만주의를 계승하면서도 20세기의 현대성을 예고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휘자로서의 화려한 명성 뒤에 숨겨진 작곡에 대한 갈망을 풀기 위해, 매년 7~8월 여름휴가만큼은 오로지 자연 속에 틀어박혀 곡을 썼습니다. 스스로를 “여름 작곡가”라 부르며, 소박한 오두막 안에서 자연의 소리를 음표로 옮겼던 것입니다.

함부르크 오페라 극장(1891~1896)과 빈 국립오페라 극장(1897~1907)의 지휘자로 재직하던 전성기에도 이 두 달간의 휴식은 그에게 창작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잘 보존된 세 곳의 여름 오두막(Composing Hut)은 그가 남긴 9개의 교향곡과 주요 성악곡들이 탄생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말리의 창작 산실 세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스트리아 슈타인바흐 아터제(Steinbach am Attersee, 1893~1896),
2. 오스트리아 마이어니히 뵘르터제(Maiernigg am Wörthersee, 1900~1907)
3. 이탈리아 토블라흐(Toblach/Dobbiaco, 1908~1910)

첫 번째 오두막: 슈타인바흐 아터제

잘츠부르크에서 약 45km 떨어진 슈타인바흐는 오스트리아의 보석 잘츠카머гут(Salzkammergut) 지역에 위치합니다. 호텔 페팅거(Fettingger) 로비에서 목격한 열쇠를 받아 뒷마당 호숫가로 걸어가면, 아터 호수(Attersee)의 푸른 물결 앞에서 있는 작고 소박한 오두막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호텔 주인이 단골이었던 말리를 위해 지어준 곳으로, 책상과 의자, 피아노가 전부인 단순한 구조입니다. 말리는 이곳에서 교향곡 제2번 ‘부활’과 제3번, 그리고 초기작에 큰 영향을 끼친 <소년의 요술피리(Des Knaben Wunderhorn)>의 일부를 작곡했습니다. 제자이자 부지휘자였던 브루노 발터가 이곳을 찾았을 때, 말리는 호수의 절경에 감탄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치를 구경할 필요 없네. 이 주변의 산과 들꽃, 호수의 소리까지 이미 내 교향곡 3번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두 번째 오두막: 마이어니히 뵘르터제

클라겐푸르트 인근 뵘르터호(Wörthersee)가에 위치한 두 번째 오두막은 말리가 빈 국립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서 경제적 여유를 얻은 뒤 직접 세운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일상은 엄격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직접 난로를 지피며 피아노, 칸트, 바흐의 악보를 곁에 두고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이곳은 19세 연하의 알마 쉬들러와 결혼해 두 딸을 낳고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낸 곳이지만, 동시에 가혹한 비극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1904년 여름, 말리가



김영석 동문이 두번째 여름 별장이었던 오스트리아 뵘르터제를 찾아가는 길에 기념 촬영을 했다.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의 악보를 보여주었을 때 알마는 경악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곡 ‘네 엄마가 문으로 들어설 때’에서 묘사된 슬픔이 마치 자신들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아 불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네 엄마가 문으로 들어올 때면, 엄마가 촛불을 들고 들어올 때면, 너는 항상 엄마를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왔었지... 아! 이토록 빨리 나의 기쁨의 빛이 꺼져 버렸구나.”

운명의 장난처럼, 연가곡을 완성한 3년 뒤인 1907년 7월, 큰딸 마리아가 성홍열로 세상을 떠납니다. 알마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고,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말리는 결국 슬픔이 깃든 이 별장과 오두막을 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교향곡 5번을 비롯한 교향곡 4번부터 8번까지의 걸작들이 탄생했습니다.

세 번째 오두막: 이탈리아 토블라흐

말리의 마지막 창작지는 현재 이탈리아 영토인 토블라흐(Toblach)의 ‘구스타프 말리 슈투베(Gustav Mahler Stube) 호텔’ 인근에 있습니다. 알프스의 장엄한 돌로미티(Dolomites) 국립공원이 지척에 보이는 이곳에서, 말리는 심장병과 아내의 외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생애 마지막 작품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때 탄생한 곡이 <대지의 노래>와 <교향곡 9번>, 그리고 미완성인 <10번>입니다. 말리는 베토벤과 슈베르트가 9번 교향곡을 끝으로 사망했다는 ‘9번의 저주’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교향곡을 완성하고도 번호 대신 <대지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여 운명을 속이려 했습니다.

이후 안심하며 다음 작품에 ‘9번’이라는 번호를 부여했지만, 결국 10번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돌로미티의 압도적이고 거친 풍경은 그의 후기 음악에 서린 처절한 생의 의지와 죽음을 향한 이별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호텔 주인이 단골이었던 말러를 위해 지어준 슈타인바흐 아터제의 오두막 안에는 책상과 의자, 피아노가 전부였다. 아름다운 호수 뒤로는 알프스 산맥이 펼쳐져 있다. 말러의 세번째 여름 별장 인근에 있는 이탈리아 돌로미티에서 산행 중인 김영석 동문.

바그너라는 산을 넘어 모차르트 품에서 잠들어

➔ “모차르트!” 그가 닿으려 했던 마지막 평안

말러의 생애는 화려한 거장 지휘자의 삶이었으나, 내면은 14명의 형제 중 8명을 잃고 유대인으로서 끊임없는 차별에 시달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심연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잘츠캄머гут의 잔잔한 호수에서 돌로미티의 험준한 바위산까지, 그가 거닐었던 길 위에는 자연에 대한 경외와 인간적인 체념이 공존합니다. 1911년, 51세의 나이로 눈을 감으며 그는 먼저 간 딸 옆에 묻어달라는 유언과 함께 “모차르트! 모차르트!”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그는 평생의 고뇌를 뒤로하고 가장 순수한 음악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여름, 말러의 오두막을 찾는 분들이 계신다면 고요한 숲속에서 그의 교향곡 한 자락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그곳의 바람 소리와 새소리가 말러의 음표와 겹쳐 들리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러와 19세 연하의 아내 알마. 사랑했지만 딸의 죽음과 예술적 갈등, 배신 끝에 말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불안과 결핍의 시대, 왜 우리는 다시 말러를 듣는가

“너무 길고 지루하며 무겁고 소란스럽다”
한 세기 전 외면받았던 아웃사이더의 음악
말러 부활 일등공신 번스타인 레코딩 추천

구스타프 말러의 숨결이 남아 있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여름 오두막’을 다녀온 김영석 동문의 기행은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드는 ‘말러 신드롬’의 출발점을 돌아보게 한다. 말러가 자연 속에서 고독하게 명작을 빚어내던 그 작은 공간에서 탄생한 선율들은, 과거 클래식계의 아웃사이더를 넘어 21세기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와 해방감을 선사하는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말러는 “너무 길고, 너무 무겁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작곡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그가 1911년 세상을 떠난 뒤 한동안 그의 교향곡은 자주 연주되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의 전설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말러 교향곡 전집을 녹음하며 대중화의 문을 열었고, 이후 말러는 전 세계 오케스트라의 역량을 증명하는 핵심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베를린 필하모니, 빈 필하모니, 시카고 심포니,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등 세계 정상급

악단들이 정기적으로 ‘말러 교향곡 사이클’을 기획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202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이 참가한 대규모 ‘말러 페스티벌’이 열려 전 교향곡과 주요 가곡이 집중 연주되기도 했다.

현대 청중들이 이토록 말러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의 음악이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음악 안에는 승리보다 불안, 확신보다 흔들림, 완전한 희망보다 상실 이후의 회복이 공존한다.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음향 속에서도 극도로 사적인 고독이 들리고, 아름다운 선율 한가운데 갑작스러운 불협화음과 붕괴의 기운이 스며든다. 어떤 이는 말러를 “현대인의 불안이 미리 작곡된 음악”이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그의 작품은 죽음, 상실, 구원,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오늘날 청중과 깊이 공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만큼, 연주자들에게는 말러가 가장 어려운 작곡가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우선 규모부터 압도적이다. 말러 교향곡은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요구한다. 관악기와 타악기의 수가 많고, 때로는 합창단과 독창자까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교향곡 8번은 초연 당시 1,000명이 넘는 연주자가 무대에 올라 ‘천인 교향곡(Symphony of a Thousand)’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러나 단순히 인원이 많아서 어려운 것은 아니다. 말러는 거의 모든 악기에 독주 수준의 정밀함을 요구하며, 극단적인 음량 변화와 복잡한 템포 전환을 지시한다. 일반적인 오케스트라에서 보기 힘든 거대한 해머(망치), 채찍, 만돌린 등 특수 악기까지 동원되는 독특한 편성 속에서 완벽한 앙상블을 맞추는 과정 역시 악단에 엄청난 집중력과 훈련을 요구한다.

연주 시간도 길다. 교향곡 3번은 90분 안팎에 이르며, 2번과 9번 역시 한편의 음악적 인생극에 가깝다. 지휘자는 거대한 구조를 통제해야 하고, 연주자들은 장시간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음악계에는 “말러를 잘 하면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말러를 처음 듣고 싶은 동문들은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

청춘과 자연에 대한 찬가가 담긴 교향곡 1번은 자연의 새소리 같은 도입부와 극적인 결말이 인상적이며, 낭만적이고 직관적인 멜로디 덕분에 입문용으로 자주 추천된다. 영화 ‘베니

스에서의 죽음’에 사용된 아름다운 4악장 ‘아다지에도’로 유명한 교향곡 5번은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아가는 서사가 뚜렷한 명작이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인간 존재의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다면 교향곡 2번 ‘부활’도 빼놓을 수 없다. 반대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듯한 깊이를 원한다면 교향곡 9번이 많은 애호가들의 선택이다.

음반으로는 말러 해석의 교과서로 평가받는 레너드 번스타인의 뉴욕 필하모니·빈 필하모니 녹음이 여전히 첫 추천 대상이다. 보다 현대적인 음향과 정교함을 원한다면 클라우드오 아바도가 지휘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나 베를린 필하모니 연주, 혹은 키릴 페트렌코의 베를린 필 실황 연주를 권할 만하다. 최근에는 세븐 비치코프와 체코 필하모니의 말러 전집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석 동문이 받을 디렝던 그 고독한 여름 오두막에서 시작된 작은 음표들은 오늘날 시대를 위로하는 가장 거대한 음악적 우주가 되었다. 어쩌면 말러가 지금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할지 모른다. 불안과 상실, 희망과 체념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시대를 그는 이미 음악 속에서 살아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주말,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말러가 남긴 거대한 울림 속으로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

이원익 동문의 문명사 뒷이야기

고무 - 나무의 눈물이 인간의 피눈물이 되다



이원익
(문리대 73·남가주)

스님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팬데믹 때의 우스개가 있다. 왜냐하면 늘 '백신', 곧 흰 고무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검정 고무신을 신으면 백신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요즘은 스님들 외엔 고무신을 신는 일도 드물고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부분이 비닐이나 플라스틱제가 대체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인조고무의 발달과 더불어 아직도 천연고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여러 가지 특성과 효용을 나타내는 수많은 고무 신소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운송, 의료, 기계산업, 일상 소비재 등 그 쓰임새를 넓힘과 동시에 특수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만약에 지금 갑자기 고무가 사라져 버린다면 부역에서 설거지하는 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선을 띄우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고무의 어떤 특성이 우리에게 어떤 효용을 가져다주는가?

첫째는 뛰어난 탄성과 유연성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진동을 누그러뜨린다. 이는 코일처럼 말려 있는 고분자 덕분에 당기거나 누르면 그 외부에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방출하기 때문이다.

마찰력도 빠뜨릴 수 없다. 신발 밑창은 물론 자동차와 항공기의 고무 타이어는 충격 흡수와 함께 육중하고 빠른 탈것이 한없이 미끄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멈추게 한다.

다음은 완벽한 방수 및 밀봉 기능이다. 고무가 없었으면 압력솥은 물론이요 현대 도시의 수도시설도 애초에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나 화학물질에 대한 뛰어난 절연성이다. 고무가 없었다면 전기로 돌아가는 현대문명은 곤경에 처했을 것이며 화학물질에 저항성을 갖춘 고무제품이 없었다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애로가 많았을 것이다.

이 밖에도 더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고무의 혜택을 입고 사는 뒷면에는 고무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그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고무문명(?)의 탄생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잔인하고 슬픈 흑역사가 있고 우리에게 그 기억을 강그리 잊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고무는 누가 발견하거나 아니면 발명한 것일까?

본래 동서양 모두 고무라는 것을 몰랐으며 감자나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고무도 아메리카의 원주민에게서 왔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쯤부터 중미의 올멕 문명에서는 자연산 고무나무(Hevea Tree)의 젖물(乳液, Latex)



위 사진은 생고무를 채취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 원주민들. 아래 사진은 콩고를 개인 식민지로 삼았던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왼쪽)와 고무 채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손이 잘려나간 콩고 원주민의 모습.

부역 고무장갑에서 자동차 타이어, 우주선까지 탄력과 완충, 절연과 밀봉으로 문명 떠받친 고무

탐욕으로 고무 왕국 세운 아라나와 레오폴드 2세 밀림 원주민들 강제 노역 몰아넣고 생고무 채취 손발 잘라 멸족시키며 아마존·콩고 피로 물들여

을 받아내어 썼고 그것을 둥글게 문치고 굳혀 공을 만들어 차고 놀았다. 그 후 마야와 아즈텍에서는 고무 그릇이나 제 발 모양을 찍어 굳힌 고무신을 만들었고 고무나무 젖물을 옷감에 입혀 방수천을 만들었다. 여러 고무나무 가운데 천연고무는 주로 아마존 고무나무(Hevea Brasiliensis)에서 생산된다.

고무의 역사는 이러하다. 1736년, 프랑스의 탐험가 라 콩다민이 남미에서 고무 덩어리를 가져왔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1770년, 영국의 프리스틀리가 우연히 연필 글씨에 고무를 문지르면 글자가 지워지는 것을 보고는 고무를 rubber(문지르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우리말 '고무'는 네덜란드어 고클(gom)에서 일본어 고무(ゴム)를 거쳐 온 것이다. 중미의 인디언들은 코아오추(coaochu), 곧 나무

(coa)의 눈물(ochu)이라고 불렀는데 뒷날 정말로 이 나무의 젖물이 온 대륙과 인간의 피눈물이 되어 흐를 줄은 미처 몰랐으리라.

그 후 유럽 각국에서 고무를 다루는 방법과 쓰임새가 하나씩 알려져 돈벌이가 되고 수요가 늘었는데 이때부터 아마존의 고무나무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뜨거워졌다. 이들은 원주민을 강제로 쥐어짜서 밀림에 자생하는 고무나무의 진을 악착같이 받아내어 팔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자가 페루 출신의 백인 사업가요 정치가인 아라나(Julio César Arana del guila 1864~1952)이다.

페루에서 태어난 아라나는 1881년, 페루의 밀림으로 들어가 고무 거래를 시작하는데 1889년부터는 페루 동북부 아마존강 지류 푸투마요강 언저리에서 몇 해 동안 고무 사업을 한다. 1899년

에는 고무나무 숲의 노다지와 규모가 큰 인디오 집단도 찾아내어 이 둘을 철저한 강제 노예노동으로 엮어 경쟁자들을 몰리치고 독점적인 고무 왕국을 세운다. '푸투마요 추문'이라는 처참한 비극의 시작이다. 다른 경쟁자들도 인디오들에게 무도한 악행을 저질렀음은 물론이다.

아라나는 푸투마요 강을 비롯하여 페루-콜롬비아 부근 상류 지역 인디오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 후이트족, 안도케족, 보라족, 노누야족, 무이나네족, 미라나족 등은 경작이나 사냥 등 전통적인 생활이나 활동을 일체 금지당하고 오로지 아라나를 위해서만 희생된 결과, 근 십 년 동안에 4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

아라나는 이렇게 쌓은 부를 바탕으로 시장을 비롯하여 상원의원과 상공회의소 소장이 되었다. 사업도 번창하여 1903년, 아마존강 중류 마나우스에 지사를 내는 등 각 지역 45군데에 고무 채집소를 세웠다. 뉴욕에도 지점을 두고 런던에도 고무 회사를 설립, 영국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강패 수법을 동원하여 콜롬비아 쪽 조무래기 고무 회사들을 다수 사들인다. 당한 자들이 항의를 해도 콜롬비아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였다.

하지만 영국에서부터 반전이 시작되어 웨이드 데이비스는 <아마존 열대우림 - 강의 탐험과 발견>에서 아라나의 악행을 폭로한다. 1908년에는 미국의 젊은 철도 기사인 월터 하든버거도 푸투마요 강을 지나다 참상을 목격하고는 런던의 신문에 '악마의 천국(Devil's Paradise)'이란 제목으로 투고를 한다. 아라나가 아마존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십 년 후에는 관련된 인디오 부족 거의 전부인 4만 명이 죽어 멸종 상태에 다가간다. 1907년에 처음으로 아라나의 회사가 페루 당국에 고소를 당하여 관련자 215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도망간 후였다.

아라나는 본인의 책임을 모두 부정하였으며 드러난 잘못은 도망쳐 버린 자기 부하들의 실수로 돌렸다. 1913년에는 영국 하원에 출석하여서는 자기는 끝까지 이들 야만인이고 식인종인 인디오들을 계몽시키고 개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전개와 대중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아라나는 끄떡없었는데 때마침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만사 흐지부지되면서 풀려났다. 그는 여생을 여러 공직을 맡은 정치인으로 88세까지 잘 살다 수도 리마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 살인마에 대해서 페루의 일부 인사들은 아직도 그를 국의 수호의 강력한 영웅으로 받들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아라나를 조무래기로 만들어 버리는 고무 악마가 한 사람 더 있으니 그보다 스물아홉 살이 많은 벨기에의 군주 레오폴드 2세(Leopold II 1835~1909)다. 1865년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식민지 연기를 열망하여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 2세와 손잡고 필리핀을 어찌 해 보려다 실패하자 눈길을 아프리카로 돌렸다. 미국



윤정아의 독서 산책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고

육체의 고통을 넘어 한 발자국 더...정신의 불순물을 걸러낸다



윤정아
(생과대 소비자학과 95)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오래된 에세이 책을 접어들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작년 말부터 동참한 러닝모임에서 새벽 달리기를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오색찬란한 일출을 보며 행복감을 맛본 나는 일상의 섬세한 면을 포착해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해 낼 줄 아는 하루키의 시선을 빌려 달리기의 매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달리기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면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는 행위라는 것을, 오롯이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걸어 온 길을 돌아보고 묵은 감정을 마주하며 자신의 잠재력이나 삶의 즐거움을 끝까지 끌어올려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살아온 만큼의 인연과 경험으로 삶

의 농도가 짙어지듯이, 하루키가 달려온 거리만큼의 생각과 인내가 녹아든 책 속의 문장에는 남다른 울림이 있었다.

책 속에서 만난 무라카미 하루키는 세계적인 천재 작가의 모습이 아닌,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고 도로로 나서는 러너의 모습이었다.

매년 한 번 이상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100km 울트라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 대회에도 참가하는 사뭇 진지한 러너. 글쓰기를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작가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서의 달리기를 이

야기하고, 육체의 점진적 쇠락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달리기에서 삶을 살아내는 방식을 배우는 평범한 인간. 묵묵히 달려 온 길 위에서 흘린 땀방울과 근육의 피로가 어떻게 그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 주었는지, 그 과정에서 축적된 사유가 어떻게 그의 삶에 고스란히 스며들었는지를 담담히 이야기하는 글 속에서 그의 달리기에 대한, 삶에 대한 진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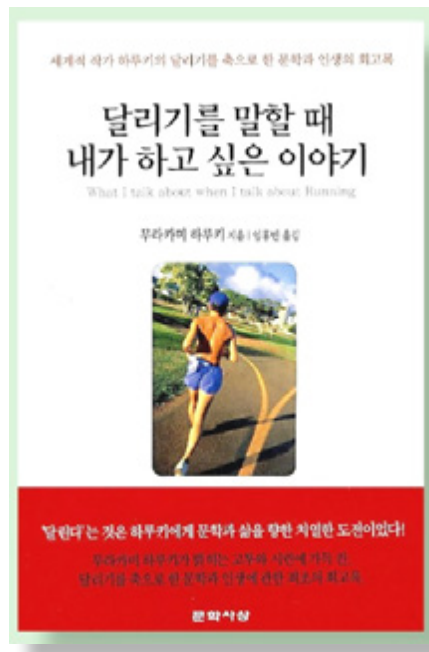
하루키에게 있어 ‘달리기’라는 물리적 행위는 ‘삶’이라는 추상적 가치와 그 삶을 살아내는 방식과 닮아 있다. 그 무엇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내 두 다리만으로 버텨야 하는 42.195 킬로미터의 마라톤. 흔히 인생에 비유되는 마라톤에 임하며 하루키는 한 러너가 남긴 격언을 인용한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하기 나름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이라고.마라톤에서의 육체적 고통은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필연이지만, ‘더는 못 뛰겠다’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며 고뇌하고 괴로워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하루키. 그는 육체의 고통을 되뇌이며 이에 무릎 꿇기보다는 무념무상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완주를 거듭 선택한다.

때로는 햇살과 바람이, 온도와 습도가, 무거워진 다리와 가쁜 호흡이 러너의 마음에 안개처럼 차오르지만, 그 지점에서 한발씩 더 내딛는 것이 자신을 안개 밖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그러면서 나의 한계가 한 뼘씩 넓어진다는 것을 하루키는 경험으로 이야기한다. 수많은 시련과 노화, 그리고 육체적 한계라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통이 존재하는 삶 역시 이와 같지 않을까.

다리가 멈추고 싶어 할 때, 호흡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법을 보여준 하루키는 매일 꾸준히 달리는 행위가 삶의 불확실성과 허무함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내면의 맷집을 길러준다고 고백한다.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묘비명에 “소설가이자 러너,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는 문장이 새겨지기를 바란다. 하루키는 달리기를 통해 길러진 지속성과 리듬이야 말로, 매일의 지루한 반복을 견뎌내는 그 힘이야 말로 인생에서의 큰 성취라고 전한다.

매일 일정한 거리를 달리며 정신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행위, 달리는 동안 철저히 혼자가 되어 그 고독 속에서 생각과 감정을 가다듬고 절제하는 그의 모습이 우리 각자가 마주한 인생이라는 장거리 레이스를 아름답게 완주하는 방법 하나를 조용히 보여준다.



▶ 탐험가 헨리 스탠리에게 자금을 대며 탐험하게 한 후 콩고 지역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었다. 스탠리는 킨샤사 지역에 레오폴드빌(Leopoldville)이라는 전진기지를 마련하여 레오폴드 2세가 아프리카에 진출할 기초를 닦았다.

1884년 즈음,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의 주재로 미국과 소련 등 서양 열강 14개국이 베를린 회의를 열어 서아프리카를 어떻게 나눌지 교통정리를 했는데, 이때 레오폴드 2세는 벨기에 본토의 70배가 넘는 이 중앙아프리카의 정글 지대를 콩고 자유국이라는 명목으로 차지할 수 있었다. 열강들 앞에서는 그곳 원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그럴듯한 다짐과 명분을 헌납하였다.

그는 이 콩고 땅을 벨기에 왕국이 아니라 자기 개인 소유의 식민지로 얻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오로지 자신의 부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평생 한 번도 콩고에 가지를 않고 멀리서 대리인들을 보내 통치, 감시하며 처음부터 원주민들을 쥐어짜다.

그는 자신의 개인 군대인 공안군(公安軍 Force Publique)을 콩고에 육성하여 손발로 부리며 제멋대로 원주민들의 삶과 생명을 짓밟았다. 처음에는 상아를 거두어들였으나 마침 세계적인 수요가 크게 인 고무로 눈을 돌렸다. 3개 조항을 선포하여 외국인의 접근을 막고 모든 콩고의 주민은 상아나 고무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명령에 따라 채취하거나 간에 무조건 즉시, 자신이

지정한 대리인이나 당국에만 갖다 바치도록 했다.

콩고의 생고무는 고무나무가 아니라 고무 넝쿨(Landolphia Ovariensis)에서 나왔다. 그의 수하들은 원주민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하루에 채취해야 할 할당량을 지정하였고 남녀노소 흑인들은 이 고무 넝쿨을 찾아 헤매다 발견하면 넝쿨을 토막으로 잘라 나오는 젖물을 온몸에 발랐다. 젖물은 금방 굳으며 몸에 붙어붙었는데 하루해가 기울어 이렇게 겹겹의 고무 덩어리가 되어 구르다시피 감독관에게 가면 강제로 이 굳은 생고무를 뜯어내었다. 이렇게 아픔을 참으며 뜯어 모아진 생고무를 저울에 달아 할당량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그 사람의 자식을 끌고 와 보는 앞에서 손목이나 발목을 잘랐다. 그다음 날도 못 채우면 아내의 손발을 잘랐고 그다음 차례는 본인 손발이었다.

이러한 폭압에다가 백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등 전염병으로 그의 통치 기간 23년 동안 콩고 전체 원주민의 반인 약 1천만 명이 죽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레오폴드는 이렇게 모은 거액의 부를 대부분 거대하고 화려한 집을 짓고 거기를 사치품으로 꾸미거나 그 속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에 쏟아부으며 ‘건축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금 벨기에 곳곳에 남아 있는 크고 휘황찬란하며 고전적인 많은 공공 건축물 중 상당수가 바로 이 한 많은 콩고 사람들의 잘린 손발로 쌓아 올

린 것이다.

1890년대에 타이어, 호스, 전선 등의 생산으로 고무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발하여 그는 때돈을 벌었다. 하지만 1903년에 꼭대기에 이른 후 생고무 값은 차차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동남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의 영국인 소유 고무 농장들 때문이었다. 고무의 공급과 가격은 세계경제에 따라 널뛰기를 했다.

특히 전시에는 값이 치솟자 각국이 여러 대안을 모색한 결과, 1909년에는 독일 바이에르 사에서 프리츠 호프만의 팀이 석유화학의 합성물료 인조고무를 발명하였다. 1940년에는 미국의 구드리치 사의 알도 시먼이 값싼 인조고무인 아메리폴을 개발하였고 미국의 듀폰 사에서도 많은 신소재가 나왔다. 현재는 전세계 고무 생산량의 2/3가 인조고무다.

어쨌거나 1900년대가 지나면서 생고무는 값이 내려갔고 레오폴드는 그럴수록 더 원주민을 쥐어짜니 콩고는 해가 갈수록 지옥의 지옥으로 변했다. 하지만 레오폴드의 통치는 외부의 탐입자나 간섭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 새어 나가기 시작했다. 레오폴드는 근거 없는 풍문이라며 ‘원주민 보호 위원회’까지 만드는 촌극을 벌였지만 결국 속수무책이 되었다. 조셉 콘래드는 <어둠의 심장>이라는 소설을 썼고 코난 도일, 마크 트웨인, 버트랜드 러셀 등도 비난의 대열에 합류하였기 때문이다.

레오폴드는 뒤늦게 개혁을 약속했지

만 국제사회는 등을 돌렸고 결국 벨기에 의회는 1908년, 콩고를 레오폴드 2세의 개인 소유에서 떼어내 벨기에 왕국에 식민지로서 합병하기로 의결하였다. 콩고 통치의 전권을 넘기기 직전, 그래도 창피한 줄은 알았는지, 레오폴드는 콩고 자유국의 통치에 관한 콩고 내의 모든 기록을 지워 없애 버렸다. 그리고 1909년 12월, 44년 동안 지켜 온 왕위에 앉은 채 눈을 감았다. 그 후 콩고는 52년이나 더 벨기에령 콩고라는 이름으로 내리 식민지 통치를 받다가 1960년에야 콩고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벨기에의 동남쪽 도시 아를롱(Arlon)에는 레오폴드 2세의 동상이 있는데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나는 문명이 발전하고 벨기에에 특이 되라고 식민지를 했다.”

(J'ai entrepris l'oeuvre de la colonisation dans l'intérêt de la civilisation et pour le bien de la Belgique.)

못된 원님일수록 송덕비가 그럴듯하다는 말이 생각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물질적인 이익이 되지만 했다면 그에 관련된 모든 지난 행위는 무조건 선이라고 하는 몰염치가 퍼져 나갈까 두렵다.

아무튼, 이 지난날의 상처들은 동서양이나 국적을 떠나서, 탄력과 완충, 안착과 절연, 그리고 방수와 밀봉을 즐기는 현재의 모든 고무문명 사회가 최소한 정신적으로라도 치유하고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한다

박상호 동문의 '가려진 책을 찾아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존재하다니...”

미야모토 테루의 《반딧불 강》을 읽으며 황순원의 《소나기》를 떠올리다

내 기억이 맞다면, 오래 전 중학생들은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 다음 학년의 교과서를 받았다. 어머니는 새해가 오면 작년에 사용한 달력 중에서, 가장 예쁜 그림이 실린 달을 찾으셨다. 자식들이 새교과서로 공부하는 동안 닳아 헤지지 않게 하려고, 정성스럽게 달력으로 책의 겉표지를 포장하셨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위한 부적과 같았다.



나, 거대한 방직기계에 의해 짜여지는 미의 극치를 향해가는 직조기술 같다고 생각했다. 중학교 2학년, 13살 나이에 경험한 글에 대한 경이로움은 나의 모든 시간에 촘촘히 박혀 있다. 교실의 중간에서 조금 우측으로 그리고 조금 뒤에 있었던 내 자리도 또렷이 기억난다. 그 모든 것이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로 시작되었다. 나는 아직도 이 작품을 능가하는 경이로움을 다른 작품으로부터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얼마전 매우 흡사한 감흥을 일본 소설가의 단편에서 느낄 수 있었다.

누나들은 스스로 표지를 골라 자신들의 교과서를 꾸몄다. 하지만 어머니는 투박한 손과 갈끔하지 못한 성격을 가진 아들을 위해 손수 나의 교과서들을 포장해 주셨다. 교과서들을 감싸 안은 총천연색의 화려함이 떠오른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림은 르누아르와 반 고흐를 비롯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 작품이다.

학교 2학년의 국어책은 미리 읽지 못한 채 새 학기를 맞이하고 말았다. 아마도 집안에 큰 우환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해 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 흰 눈 위 세상을 뚱개처럼 팔짝팔짝 뛰어다니기 바빴을 지도 모른다.

파라 헐떡이는 친구들은 가차없이 머리를 쥐어 박히고 강제로 앉혀졌다. 단편소설이 천천히 읽혀지며, 잘게 잘려진 소설의 무대와 대화들이 교실의 구석구석을 채워 나갔다.

내가 소장한 미야모토 테루(왼쪽사진)의 소설은 2권이다. 《환상의 빛》과 《반딧불 강》이다. 일본의 유명 영화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츠에 의해 영화화되어 많은 국제 영화제 수상을 거친 《환상의 빛》도 명작이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어린 아이의 눈에 흑백 사진처럼 각인되어 펼쳐지는 단편집 《반딧불 강》을 추천한다. 이 소설책이 순수했던 나의 중학교 시절을 깨워 나를 아름다운 과거로 인도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어야만 했다.

나는 보통 국어책을 봄이 오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겨울철에 대부분 모두 읽었다. 특히 단편 소설이나 수필을 읽으려는 목적이 컸던 것 같다. 1970년대 중반의 시기이니, 전자오락이나 스마트폰 같은 미지의 세계를 장식할 장비나 기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시간이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까닭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집안에 굴러다니는 책을 읽는 것이었다. 그것이 교과서이건 ‘선데이 서울’이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단편소설이 시작되는 국어시간의 첫날은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의 번호를 마구잡이로 불러 본문 전체를 읽히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론 불특정 학생을 소환하여 교과서를 읽게 강요하는 것은, 수업 중에 졸고 있는 불량학생을 잡초처럼 뽑아 내려는 선생님의 의지다. 그때가 학기의 중반을 지나갈 무렵이었다. 국어 선생님은 오늘의 날짜 끝 숫자를 쫓아 학생들을 세워 책을 읽게 했다. 받침을 틀리게 읽거나 호흡이 가

글을 쓴다는 것은, 차곡차곡 이야기를 아름답게 쌓아 올리는 건축기법이

***박상호 동문(치대 80)은 본업인 치과의사를 하면서 미주한국일보를 통해 시(2010년)와 소설(2012년)을 등단했다. 지난해 자전적 수필집 《사막 한 가운데 책방》을 출간했다.



고 손명세 선생님의 유고 시집

고고하게 서있는 시들을 마주하며

지난해 4월에 돌아가신, 손명세(공대 60) 선생님의 유고 시집이 출간되었다. 선생님과 함께 문학을 토론하던 문우들이, 선생님의 유작을 모아 펴낸 시집에는, 선생님의 총 68편의 시들이 모여 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총 3년간에 걸쳐 쓰여진 작품들이다.

다. 그러한 인연으로 지난 8년간 수많은 만남을 선생님과 이어왔다.

처음에는 짧은 집필 시간 동안 써 내려가신 많은 작품 수에 존경심이 솟구쳤다. 한 편 한 편 시들을 읽어가 는 순간, 모든 시들이 머리를 치켜 세운 채, 고고하게 서 있는 자세에 경외감이 일어났다. 문우들의 16편 추모시를 합치면, 총 84편의 시가 실린 두터운 시집이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지인을 만나는 것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가 바라보는 죽음을 나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그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적나라하게 서로 얼굴을 보며 마주 설 수도 있다. 무슨 말을 해야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충분히 당신을 붙잡고 싶어하는 가를 표현할 수 있을 지, 그 모든 것에 자신이 없었다. 나는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떠한 용기도 해안(解顔)도 없는 이유로, 선생님의 마지막을 보기 두려웠다.

무력함의 한가운데에서, 아내의 계속되는 권유로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그의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

그러니까 너는 손명세

그러니까 너는
알 수 없는 우주의 어느 곳에서
막막한 시간을 건너
기시감인 듯 동네 길
마음 서늘한 사람 집 앞의 한 그루 나무
뒤고팠나 보다
사랑은 알지 못해도
외로움만 한 거름으로도 퇴적하고
어느 별에서 온 공주다

그러니까 너는
어느 부나비도 타인의 아픔을
달래 주려 날아오지 않겠으니
영원을 넘어서 하나다
천일(千一, 1001)이다

그러니까 너는
옛이야기 되풀이 없이
새 이야기로
죽음을 건너는 삶을 만든다
넘쳐났다, 많은 옛 이야기들을 넘어서

그러니까 너는
위로하는 사람
임시랑토 안타 하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러게요, 힘드네요, 손잡아
높에 빠진 이 건져주는 사람

허나, 세상은 서로에게 고통이니
너도 높다

그 높에 빠진 나는 건지려 하지 마오

눌 수 있었다. 두려워하던 서먹서먹함은 어디에도 없고, 오래전 만났던 순간과 동일한 표정과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갔다. 우리 앞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는》이다.

시집의 대표작은, 시집의 이름을 빌려 쓴 사실이 말하듯 《그러니까 너

***고 손명세 동문은 UCLA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휴렛팩커드의 R&D 연구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했다. 미주한국문인협회를 통해 시와 수필로 등단했다.

김학천의 세상만사 이야기

42.195km, 우리의 인생과 닮은 마라톤



김학천
(치대 70·남가주)

그리스 신화에 가장 빠른 여인 이야기가 나온다. 아탈란테. 그녀는 '나보다 빠른 자만이 나를 얻을 수 있다'는 결혼 조건을 내걸었다.

수많은 남자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패배해 죽음을 맞이했다. 이 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달리면서 황금 사과를 굴리자 그 빛에 그녀가 잠깐 망설이며 멈추는 사이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 승리했다. 신(神)들의 달리기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령 헤르메스는 발에 날개를 달았고, 니케는 승리의 여신으로 숭배 받는다.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인들이 가장 원했던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자유로움'을 신발과 승리의 이름 속에 담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 달리던 사람들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승리의 여신 '니케(Nike)'의 이름을 딴 나이키의 창업자 필 나이트는 대학 중거리 육상선수였다. 선수로서는 세계를 제패하지 못했지만, 달리는 자의 발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육상 대회장에서 트럭 트렁크에 실은 신발을 팔던 그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제국을 세웠다. 독일의 아디 다슬러도 마찬가지였다. 열정적인 운동선수

였던 그는 어머니의 세탁실 뒷방에서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저

울을 들고 다니며 더 가벼운 원단을 찾았고, 선수들을 직접 만나 신발을 테스트했다. 그의 신조는 단 하나, '운동 선수에게 오직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훗날 형과 결별하고 세운 회사의 이름은 자신의 애칭을 딴 아디다스였다. 이렇게 해서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샌들은 트럭 트렁크에서, 세탁실 뒷방 작업대 위에서 탄생하게 됐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 마라톤 평원의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40 여Km를 쉬지 않고 달린 데서 유래된 마라톤이 오늘날 42.195 Km로 된 것은 그 전설과 전혀 무관하게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습지 않은 영국 왕실의 요청에 의

해 굳어진 숫자다. 역사적 거리가 아니라 어쩌다 생긴 거리였던 거다.

지난달 26일 영국 런던 마라톤에서 케냐 출신 사바스티안 사웨 선수가 1시간59분30초의 기록으로 인간의 한계라는 '마의 벽' 2시간을 처음으로 깬다. 이 일로 케냐 고원 해발 2,000m 고원지대에 사는 칼렌진족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국제 달리기 대회에서 따는 금메달의 73%가 이 부족에서 나온다고 한다. 적혈구 수치가 높고 종아리가 가늘고 길다. 그러나 비결이 그런 유전자만의 덕은 아니다. 그곳 아이들은 학교까지 매일 달려 다닌다. 훈련때문이 아니라 각박한 삶에 의한 수단이었다. 마라톤의 황제 킵초게도 이 땅에서 났으며 그의 철학은 'No Human Is Limited

(인간에게 한계란 없다)'였다. 이러한 피와 땀의 노력 못지 않게 과학의 힘도 있었다. 이번 승리자 사웨는 아디다스의 97g짜리 카본 레이싱화를 신었다. 일찍이 선두주자였지만 한때 나이키에 밀려난 후 절치부심한 아디다스의 철학이 9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42.195km는 우리의 인생을 닮았다. 시작은 누군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중간에 반드시 벽을 만나지만 결국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은 기술보다는 의지의 문제다. 마라톤 평야를 달려온 병사는 승전보를 알리고 죽었으며 아탈란테는 달리다 멈추었다. 아디 다슬러와 필 나이트는 달리던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신발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 사웨는 달리며 인류의 한계를 다시 만들어 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케냐의 붉은 흙길 위에서는 누군가 달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어딘가의 새벽 길 위에서도 누군가 달리고 있을 거다.

세상이 아직 모르는 이름으로 미래를 향해서. 아탈란테가 황금 사과를 쫓지 않고 계속 달렸다면 무엇을 얻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승리였겠지만 대신 이야기를 잃었을 것이다. 달리의 역설이 거기 있다.

완벽하게 달린 사람보다 달리며 무언가를 겪은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된다. 그리고 보면 마라톤은 42Km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42번 이겨내는 것일 게다. 해서 삶이란 한계가 없다고 믿는 것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더 버텨내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닐는지. 우리 각자의 달리는 게 무엇을 향해 있을까?



케냐의 세바스티안 사웨가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2시간의 벽'을 깨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한탄강에서 에볼라 강까지

얼마 전 남극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 승객 3명이 숨졌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문득 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필자가 복무했던 곳은 한탄강 인근이었다. 한타바이러스의 이름이 탄생한 그곳이다.

한탄강은 강원도 철원을 지나 휴전선을 따라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강이다. 절벽과 협곡이 빚어내는 풍광은 웅장하면서도 처연하다. 당시 젊은 병사의 눈에는 사진으로만 보던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축소해 놓은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분단의 상처와 전쟁의 비극이 흐르는 강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한타(Hanta)' 바이러스라 부른다. 그 이름의 유래는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공군 참전 이후 전세가 급변하자 미군은 한탄강 일대 '철의 삼각지'에서 치열한 방어전을 펼쳤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병사들이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쓰러지기 시작했다. 고열과 급성 출혈 증세를 동반한 치명적인 질병이었다. 감염자는 수천 명에 달했고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다. 전투보다 질병이 더 무서웠던 순간이었다.

당시 미군 수뇌부는 처음에 이를 중국의 생물무기로 의심했다. 만약 사실

로 확인될 경우 원자폭탄 투하까지 검토될 만큼 상황은 심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중공군 역시 같은 괴질로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만든 무기가 아니라 자연 속 바이러스의 공격이었다. 자칫 한반도가 또 다른 참화를 맞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 원인이 밝혀진 것은 무려 25년 뒤였다. 이호왕 교수(의대 48)는 한탄강 주변 들쥐를 연구한 끝에 바이러스의 숙주를 찾아냈다. 세계 의학계가 깜짝 놀랄 발견이었다. 그는 이 바이러스를 '한탄 바이러스'라 명명했지만, 미국에서는 발음의 편의 때문인지 '한타 바이러스'로 불리게 됐다.

이 교수는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수혜자이기도 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면역학 연구에 매진했고, 결국 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이어 백신 개발까지 성공했다. 이 업적으로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지만, 당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과학계 환경은 세계 최고 권위를 차지하기엔 아직 부족했던 시절이었다.

한타 바이러스는 한국만의 질병이 아니었다. 1990년대 콜로라도·유타·애리조나·뉴멕시코 등 4개 주가 만나는 이른바 '포 코너스'(Four Corners)에

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며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방역당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요즘 한탄강 못지않게 공포의 상징이 된 강이 또 있다. 바로 아프리카 콩고의 에볼라 강이다. 에볼라 강에서 이름을 딴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매우 높아 '현대판 흑사병'으로 불린다. 치료제와 백신이 거의 없던 시절에는 감염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출혈과 고열 등 증상 또한 한타바이러스와 닮아 있다.

10여 년 전 에볼라가 창궐했을 당시에는 "미국이 인구를 줄이기 위해 만든 생물무기"라는 음모론까지 퍼졌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에볼라와의 전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나라는 미국이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고,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에 수천 명 규모의 병력과 의료진을 보내 방역 지원에 나섰다.

한국 역시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했다. 어쩌면 한탄강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연구와 국제사회의 도움에 대한 작은 보은이었던지도 모른다.

공교롭게도 남극 크루즈선의 한타바

이러스 집단 감염 소식과 거의 동시에 아프리카에서 또다시 에볼라가 확산되고 있다.

벌써 25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무장 반군의 폭력 사태와 대규모 난민 발생까지 겹치며 환자 격리와 감염 경로 추적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바이러스는 언제나 인간 사회의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든다.

돌아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역사이기도 하다. 천연두와 흑사병, 스페인독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그리고 한타와 에볼라까지. 인간은 과학과 의학으로 맞서 싸우지만 바이러스 역시 끊임없이 변이하며 살아남는다.

그러나 역사는 또 하나의 사실도 증명해 왔다. 결국 인류는 협력과 연대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는 점이다.

한탄강의 작은 들쥐에서 시작된 연구가 세계인의 생명을 구했듯,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과 바이러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인류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과학의 힘, 연대의 가치,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 또한 함께 배워가고 있다.

<편집고문>

외국인 대상 글로벌인재학부 내년에 문 연다

국제화 지표 향상 겨냥, 27개 단대에 10억원 지원

서울대가 글로벌 대학으로의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외국인 대상 글로벌인재학부는 내년 2학기 출범을 앞두고 있고,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별 단과대의 국제화 지표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4월 27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달부터 각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외국인 학생 유치와 생활·정착 지원 활동을 지원 중이다. 구체적으로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7개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에 일정 규모로 균등 지원한다. 단과대별 국제화 전략과 외국인 학생 유치, 학습 지원 및 생활·정착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추가 지원금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외 입학설명회 및 홍보 등 외국인 학생 유치,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안정적인 정착 등 지원에도

나선다. 외국인 대상 학부 신설의 경우 학내 의사결정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4월 22일 서울대 평의원회에서 기존 원안대로 학부 신설을 통과시키면서 내년도 9월부터 학기가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학부 신입생은 36명 남짓으로 예상되며, 정원 외로 잡힌 비교적 소규모 모집이다. 내국인 정원에 미치는 여파를 줄이면서도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절충안이라고 서울대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

감사에선 “서울대가 QS 세계대학평가에서 2023년도 기준 29위였는데, 2026년도(적용 기준) 38위로 하락했다”며 “순위 하락 원인은 국제화 지표로, 유학생 비율과 다양성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해당 조사에서 서울대는 취업 성과(6위)와 학계 평가(20위)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외국인 교수 비율(801위)과 외국인 학생 비율(622위) 등 국제화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전체 순위가 하락했다.

도남 조윤제 장학기금 200만 달러 쾌척

모교, 조복래·윤계자 동문 부부에 감사패

유홍림 총장은 4월 10일 제2회 도남상 시상식 및 도남 50주기 기념 학술대회서 조복래·윤계자 동문 부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1세대 국문학자인 도남(陶南) 조윤제(1904~1976) 선생의 아들 부부인 조복래(문리대 사회학과57)·윤계자(미대 응용미술과 61) 동문이 선친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도남 조윤제 학술장학기금’ 200만 달러를 쾌척했다. 국어국문학과는 ‘도남 조윤제 학술장학기금’을 통해 문리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도남 조윤제 선생의 학덕을 기리는

한편, 한국고전문학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2025년 도남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조윤제 선생은 조선어문학회를 결성하고 첫 국문학 잡지를 발간하는 등 국문학의 기틀을 닦은 국문학자로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서울대 문리과대학장 등을 역임하는 등 후학 양성 및 국문학의 연구·교육에 헌신하고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상했다. 노스캐플라이나주 채플힐에 거주 중인 조복래 동문은 도남 조윤제 선생의 삼남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인 시티코프



유홍림 총장(왼쪽)이 전달한 감사패를 받은 조복래·윤계자 동문 부부

(Citicorp) 부사장을 역임하고, 배우자 윤계자 여사와 함께 선친의 업적을 기리며 모교 사랑의 뜻을 이어 나눈을 실천하고 있다. 조 동문은 인터뷰를 통해 “선친

께서 평생을 바쳐 일구신 국문학의 토대가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게 계승 및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정세근 (자연대82)



Saekewn (Sean) Chung

13534 Union Village Cir
Clifton, VA 20124

703-663-8400
agent@cnninsurance.com



Saekewn (Sean) Chung, MS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Licensed Agent

11325 Random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B 703 785 8467
schung@ft.newyorklife.com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재정자립기금 \$1,324,971 (as of 01.25.2026)

*지난 회보에 게재된 금액은 모교발전기금과 장학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故고광선 (공57)
뉴욕-조상근 (법69)
필라델피아-신의석 (공53)

플래티넘이사 (\$50,000 이상)

조지아-주중광 (약60)
조지아-허지영 (문66)

골드이사 (\$10,000 이상)

워싱턴주-양남주 (명예이사)
남가주-김경숙 (간68)
남가주-김일영 (의65)
남가주-김보연 (간63)
남가주-김용재 (의60)
남가주-노명호 (공61)
남가주-박종수 (수의58)
남가주-박창규 (약59)
남가주-서동영 (사60)
남가주-서치원 (공69)
남가주-성낙호 (치63)
남가주-심화섭 (약61)
남가주-이기준 (법54)
남가주-이병준 (상55)
남가주-이홍표 (의58)
남가주-벤자민홍 (문53)
남가주-하기환 (공66)
남가주-한귀희 (미68)
남가주-한홍택 (공60)
남가주-홍수웅 (의59)
남가주-홍훈정 (음70)
남가주-정상진 (상59)
뉴욕-강에드워드 (사60)
뉴욕-오인석 (법58)
뉴욕-이정자 (간59)
뉴잉글랜드-박영철 (농64)
뉴잉글랜드-오세경 (약61)
뉴잉글랜드-윤상태 (수의62)
뉴잉글랜드-정선주 (간68)
뉴잉글랜드-최홍균 (공69)
미시간-박용화 (의58)
북가주-강재호 (상57)
북가주-김정희 (음56)

북가주-민병곤 (공65)
북가주-전혜경 (문67)
샌디에고-이면기 (공64)
시카고-이용락 (공48)
시카고-조규승 (문72)
워싱턴주-김재훈 (공72)
워싱턴DC-이태영 (법60)
조지아-김현희 (간59)
커네티컷-김창수 (의54)
필라델피아-김영우 (공55)
필라델피아-손재욱 (가정77)
필라델피아-이만택 (의52)
하트랜드-이상강 (의70)
하트랜드-김경숙 (가정70)

실버이사 (\$5,000 이상)

남가주-故김원경 (약59)
남가주-故김병연 (공68)
남가주-故이종도 (공66)
남가주-권봉성 (문64)
남가주-김수영 (사57)
남가주-박인창 (농65)
남가주-이종묘 (간69)
남가주-이호진 (간74)
남가주-정임현 (간72)
남가주-정재훈 (공64)
남가주-홍성선 (약72)
뉴욕-김현중 (공63)
미네소타-황효숙 (사65)
북가주-박순희 (의60)
북가주-남광순 (음64)
북가주-차재철 (의62)
북텍사스-강영빈 (문58)
북텍사스-이승화 (공03)
워싱턴DC-남옥현 (경영84)
워싱턴DC-배성호 (의65)
워싱턴DC-최재귀 (미63)
조지아-김경숙 (사64)
조지아-김태형 (의57)
조지아-임수암 (공62)

종신이사 (\$3,000 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58)

故박명근 (상63)
故박윤수 (문48)
故서영석 (의55)
故오재인 (치33)
故윤낙승 (의60)
故오홍조 (치56)
강신용 (사73)
곽용길 (문59)
권기홍 (의60)
김광은 (음56)
김기형 (상75)
김대중 (의70)
김동훈 (의71)
김보연 (간63)
김상찬 (문65)
김성호 (법64)
김자성 (의79)
김재영 (농62)
김정빈 (공66)
김홍묵 (문60)
나두섭 (의66)
나용화 (생과79)
류재풍 (법60)
박용필 (문66)
박원준 (공53)
방명진 (공73)
백길영 (의58)
백만일 (공64)
신건호 (법53)
신경자 (사60)
신영찬 (의63)
심상은 (상54)
안병일 (의63)
이근원 (공67)
이명선 (상58)
이성숙 (공56)
이세열 (사57)
이승훈 (상74)
이재진 (문55)
이청광 (상61)
임낙균 (약64)
임용오 (의57)
전경배 (의69)
전희택 (의58)
정균희 (의64)
정희영 (치58)

정동구 (공57)
정철룡 (의61)
제영혜 (가정71)
조용문 (문66)
조한원 (의57)
차민영 (의76)
차종환 (사54)
한효동 (공58)
홍성선 (약72)
홍종화 (약74)
황해룡 (공52)

뉴욕

故김광호 (문62)
故한창섭 (문57)
故김종률 (사51)
고애자 (음57)
권영국 (상60)
김승호 (공71)
김영용 (치55)
김한중 (의56)
김해암 (의52)
배정희 (사54)
서영숙 (간67)
석창호 (의66)
손병주 (문69)
손진태 (약67)
신용남 (문70)
오용호 (의66)
윤인숙 (간63)
윤종숙 (약66)
이강홍 (상60)
이기영 (농70)
이대영 (문64)
이영재 (상58)
이재덕 (법60)
이재량 (상61)
이전구 (농60)
이준행 (공48)
이태호 (상58)
조대일 (사53)
최수용 (상55)
최영태 (문67)
최한용 (농58)
최형무 (법69)
추재욱 (의57)

한태진 (의58)
허선행 (의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69)
故박경민 (의53)
김광수 (문73)
고종성 (사75)
김문소 (수의61)
김용구 (공66)
오세경 (약61)
윤선홍 (치64)
이의인 (공68)
전신의 (문57)
정정욱 (의60)
정태영 (문71)
조만연 (상58)
홍지복 (간70)

미네소타

김권식 (공61)
김태환 (의58)
남세현 (공67)
문성인 (공88)
박현아 (공88)
변우진 (문81)
송창원 (문53)
조형준 (문62)

미시간

故남상용 (공52)
故정태 (의57)
장병진 (공61)

북가주

박종성 (법53)
박진영 (공66)
손석보 (공68)
윤정욱 (약50)
최경선 (농65)
한만섭 (공49)
황동하 (의65)

샌디에고

임천빈 (문61)
유현주 (문65)
진성호 (공64)

시카고

故이윤모 (농57)
故강영국 (수의67)
故최의필 (의53)
소진문 (치58)
심상구 (상63)
이재희 (치67)
장윤일 (공60)
조봉완 (법53)
한재은 (의59)

알래스카

윤재중 (농55)

오레곤

김상순 (상67)
박희진 (농78)
이은상 (상52)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66)
이지우 (의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53)
이명자 (간74)
이희백 (의55)
임현민 (공84)

워싱턴 DC

故방은호 (약43)
故서휘열 (의57)
강연식 (사58)
공순욱 (간66)
권기현 (사53)
민홍기 (문61)
박평일 (농69)
오인환 (문63)
이내원 (사58)
이선구 (문65)
이윤주 (상63)
최지원 (의61)

조지아

김용건 (문48)
석호태 (공85)
성성호 (사67)
이종석 (의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68)

텍사스

박태우 (공64)
이광연 (공60)
조시호 (문59)

플로리다

김중권 (의63)
임필순 (의54)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55)
김현영 (수의58)
서중민 (공64)
신성식 (공56)
주기목 (수의68)

하와이

故최경윤 (사51)

하트랜드

故김명자 (문62)
김시근 (공72)
배규영 (사68)
오명순 (가정69)
이교락 (의53)

휴스턴

박진섭 (의67)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동창회비 | 1차: 2025.7.1~2026.6.30, 2차: 2026.7.1~2027.6.30

남가주 강경수 (법58) 강동순 (법59) 강호석 (상81) 고윤석 (공62) 김경숙 (가정70) 김경자 (미60) 김광주 (문69) 김광은 (음56) 김기형 (상75) 김동산 (법59) 김동석 (음64) 김병완 (공58) 김상순 (상67) 김상찬 (문65) 김성호 (법64) 김수영 (사57) 김정복 (사55) 김중표 (법58) 김준식 (상75) 김영덕 (법58) 김영배 (미61) 김영중 (치66) 김옥경 (사60) 김원택 (공65) 김택수 (의57) 김평우 (법63) 김학수 (공76) 김홍목 (문60) 김희창 (공64) 나두섭 (의66) 나승욱 (문59) 노명호 (공61) 문병길 (문61) 박은숙 (미62) 박인수 (농64) 박원준 (공53) 박중수 (수의58) 박호현 (의52) 백혜란 (미70) 벤자민홍 (문53) 서동영 (사60) 선우원근 (공66) 손학식 (공61) 송명국 (인문81) 송태진 (공79) 신건호 (법53) 신동국 (수의76)	심계식 (사63) 양은석 (음70) 양태준 (상56) 오선웅 (의63) 윤석철 (상60) 이방기 (농59) 이범식 (공61) 이상강 (의70) 이서희 (법70) 이연숙 (간76) 이용한 (공64) 이원익 (문73) 이종모 (간69) 이진영 (의65) 이재권 (법56) 이창신 (법57) 이채진 (문55) 이호진 (간74) 이홍표 (의58) 임동규 (미57) 임창희 (공73) 장문섭 (공69) 장소현 (미65) 장원경 (미73) 장윤희 (사54) 장인숙 (간70) 정동주 (생72) 정명자 (사56) 정예현 (상63) 정 황 (공64) 조동철 (사68) 조 무 (법70) 주정래 (상65) 채규환 (법69) 천동우 (공63) 최영순 (간69) 한홍택 (공60) 한효동 (공58) 함송욱 (간73) 현기웅 (문64) 홍선례 (음70) 홍성선 (약72) 홍성애 (간60) 황건홍 (공55) 황현상 (의55)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고순정 (간69)	고애자 (음57) 권문웅 (미61) 권영국 (상60) 권영덕 (의58) 권영대 (의58) 금영천 (약72) 김광현 (미57) 김문경 (약61) 김복영 (간69) 김용연 (문63) 김옥현 (의59) 김은희 (간78) 김정희 (간69) 김정희 (약56) 김종원 (사58) 김현중 (공63) 리준무 (음65) 민인기 (의67) 박건이 (공60) 박경희 (음57) 박은규 (약72) 박제순 (인문82) 방준재 (의63) 배상규 (약61) 변건웅 (공65) 서병선 (음65) 서의원 (공66) 석창호 (의66) 선종철 (의57) 성기로 (약72) 손갑수 (약59) 손진태 (약67) 송기인 (의60) 송용섭 (농63) 송용길 (대학원69) 신응남 (농70) 안태홍 (상65) 양명자 (사63) 양성택 (상66) 우규환 (사60) 유은희 (간71) 유호근 (문71) 윤영섭 (의57) 이강욱 (공70) 이경림 (상64) 이대영 (문64) 이문봉 (미76) 이상근 (경영84)	이상무 (의56) 이영범 (공71) 이재원 (상58) 이재진 (의59) 이충호 (의63) 이태안 (의61) 이홍우 (공50) 정동성 (상58) 조남천 (사59) 조대영 (공61) 조태환 (상56) 진봉일 (공50) 최준희 (의58) 최한용 (농58) 최형무 (법69) 함종금 (간66) 허영자 (약63) Yong Auh (의66) 뉴잉글랜드 김경일 (공58) 김선혁 (약59) 김문소 (수의61) 김옥동 (사58) 김형범 (문57) 박종건 (의56) 박중승 (의56) 신정윤 (공60) 윤상래 (수의62) 윤영자 (미60) 이규진 (공72) 이금하 (문69) 한서동 (의61) 현건섭 (공55) 록키마운틴스 임현재 (의59) 미네소타 문성인 (공88) 박현아 (공88) 성욱진 (치87) 임동근 (농14) 주한수 (수의62) 황효숙 (사65) 미시건 오동환 (의65) 이상길 (의65) 주명순 (간64) 최병두 (의52) 하계현 (공64)	한영신 (생과86) 북가주 강재호 (상57) 김갑근 (공60) 김교연 (문72) 김중현 (공60) 김현왕 (공64) 민병곤 (공65) 박서규 (법56) 부영무 (치72) 손찬순 (공69) 신규영 (공64) 안호삼 (문58) 온기철 (의65) 위창호 (의67) 윤성희 (사58) 이정남 (공63) 전병련 (공54) 정지선 (상58) 정춘임 (간67) 정한규 (의63) 최경선 (농65) 한상봉 (수의67) 홍병익 (공68) 황동하 (의65) 황만익 (사59) 북텍사스 송요한 (문73) 최희기 (공61) 샌디에고 김인철 (약70) 오계환 (공64) 이문상 (공62) 임춘수 (의57) 시카고 김병윤 (문65) 김성일 (공68) 김승주 (간69) 김용주 (공69) 김용환 (공71) 김정수 (문69) 김현주 (문61) 민영기 (공65) 박창용 (공87) 백운기 (문56) 서상현 (의65) 소진문 (치58) 신석근 (문54)	심상구 (상64) 윤경순 (사61) 윤덕상 (치62) 이건정 (공69) 이경미 (미69) 이덕수 (문58) 이동균 (공75) 이용수 (약51) 이재희 (치67) 이준수 (공76) 장윤일 (공60) 정성일 (공86) 조규승 (문72) 최희수 (문67) 한의일 (공62) 한재은 (의59) 홍 건 (의64) 홍승우 (사회87) 홍정일 (약57) 황치룡 (문65) 오레곤 박희진 (농78) 한국남 (공57) 애리조나 진명규 (공70) 오하이오 유덕영 (공57) 위싱턴주 김인배 (수의59) 남세현 (공67) 서광모 (공65) 성성모 (사67) 이종석 (의54) 임수암 (공62) 정선휘 (공65) 최종진 (의63) 중부텍사스 이학호 (수의59)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58) 정신호 (자연78) 조철영 (의68)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김경덕 (공75) 김현 (문93) 서갑식 (공70) 텍사스 이승화 (공03)	천양곡 (의63) 황명규 (공61) 플로리다 오석일 (의64) 이만택 (의52) 이민우 (의61) 필라델피아 강준철 (사59) 고석규 (치65) 김국간 (치64) 김영남 (의61) 김형영 (수의58) 서중민 (공64) 손재욱 (가정77) 신선자 (사60) 신성식 (공56) 이준영 (치74) 정문필 (사56) 정 상 (약83) 정원자 (농62) 정평희 (공71) 최대용 (의73) 최재귀 (미63) 홍영석 (공58) 조지아 김기준 (공61) 김영서 (상54) 김학수 (상65) 남세현 (공67) 서광모 (공65) 성성모 (사67) 이종석 (의54) 임수암 (공62) 정선휘 (공65) 최종진 (의63) 중부텍사스 이학호 (수의59)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58) 정신호 (자연78) 조철영 (의68)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김경덕 (공75) 김현 (문93) 서갑식 (공70) 텍사스 이승화 (공03)
---	--	--	--	--	--	--



“십시일반의 정성,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하나로”

동문 한 분 한 분이 보내 주시는 십시일반의 정성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큰 힘입니다.

일반후원금, 장학후원금, Brain Network 후원금, Charity 후원금, 광고후원금, 지부분담금 | 2025.7.1~

<p>일반후원금</p> <p>남가주</p> <p>김기형 (상75) 600</p> <p>김상순 (상67) 300</p> <p>김영배 (미61) 200</p> <p>김정상 (경제91) 300</p> <p>김종표 (법58) 200</p> <p>박종수 (수의58) 3,000</p> <p>송명국 (인문81) 100</p> <p>양은석 (음70) 200</p> <p>윤석철 (상60) 2,000</p> <p>이범식 (공61) 200</p> <p>이병준 (상55) 10,000</p> <p>정예현 (상63) 200</p> <p>정임현 (간72) 1,000</p> <p>황현상 (의55) 200</p> <p>뉴욕</p> <p>강에드워드 (사60) 700</p> <p>리준무 (음65) 200</p> <p>신응남 (농70) 3,000</p> <p>조남천 (사59) 300</p> <p>뉴잉글랜드</p> <p>오세경 (약61) 3,000</p> <p>윤상래 (수의62) 1,000</p> <p>정선주/박영철 (간68, 농64) 5,000</p> <p>미네소타</p> <p>강순건 (문57) 1,000</p> <p>김권식 (공61) 40,000</p> <p>황호숙 (사65) 40,000</p>	<p>미시간</p> <p>고광국/고국화(공54, 56) 1,000</p> <p>오동환 (의65) 400</p> <p>북가주</p> <p>황만익 (사59) 200</p> <p>샌디에고</p> <p>임춘수 (의57) 200</p> <p>시카고</p> <p>최희수 (문67) 100</p> <p>이용수 (약51) 250</p> <p>서상현 (의65) 100</p> <p>오레곤</p> <p>박희진 (농78) 200</p> <p>오하이오</p> <p>故정운행 (문53) 500</p> <p>조지아</p> <p>성성모 (사67) 200</p> <p>이종석 (의54) 100</p> <p>워싱턴 DC</p> <p>강길중 (약69) 500</p> <p>권철수 (의68) 400</p> <p>박상근 (법75) 1,000</p> <p>박평일 (농69) 1000</p> <p>서운석 (의62) 200</p> <p>정평희 (공71) 200</p>	<p>캐롤라이나</p> <p>조철영 (의68) 200</p> <p>테네시</p> <p>김경덕 (공75) 100</p> <p>필라델피아</p> <p>손재욱 (가정77) 500</p> <p>이성숙 (가정74) 300</p> <p>휴스턴</p> <p>진기주 (상60) 1,000</p> <p>장학후원금</p> <p>남가주</p> <p>김중섭 (문66) 10,000</p> <p>김홍목 (문60) 300</p> <p>노명호 (공61) 10,000</p> <p>박원준 (공53) 500</p> <p>한홍택/백훈(공60, 미61) 10,000</p> <p>황현상 (의55) 100</p> <p>미네소타</p> <p>김권식 (공61) 10,000</p> <p>황호숙 (사65) 10,000</p> <p>미시간</p> <p>고광국/고국화 (공54, 공56) 200,000</p> <p>워싱턴 DC</p> <p>이경애 (문58) 10,000</p>	<p>테네시</p> <p>권준희 (가정87) 100</p> <p>필라델피아</p> <p>손재욱 (가정77) 5,000</p> <p>플로리다</p> <p>오석일 (의64) 200</p> <p>커네티컷 기부 후원</p> <p>故유시영(문68) 10,000</p> <p>Brain Network 후원</p> <p>워싱턴 DC</p> <p>오인환 (문63) 200</p> <p>광고후원금</p> <p>남가주</p> <p>강호석 (상81) 250</p> <p>김영도 (공67) 250</p> <p>김자성 (의79) 500</p> <p>김원탁 (공65) 240</p> <p>김한신 (서양사92) 500</p> <p>김홍일 (치62) 250</p> <p>독고량/서정화(음80) 250</p> <p>박상호 (의65) 250</p> <p>배재현 (공75) 500</p> <p>서동영 (사60) 740</p> <p>송미선 (음89) 500</p> <p>신정식 (상64) 500</p> <p>양은석 (음70) 125</p> <p>이명선 (상58) 1,000</p> <p>이병준 (상55) 1,000</p>	<p>이상대 (농80) 250</p> <p>이승훈 (상74) 1,000</p> <p>이종묘 (간호69) 240</p> <p>이찬용 (치72) 500</p> <p>이현림 (음81) 500</p> <p>정균희 (의64) 1,000</p> <p>최운화 (상78) 250</p> <p>하기환 (공66) 1,000</p> <p>하선호 (치81) 250</p> <p>한태호 (문75) 500</p> <p>Duo America 300</p> <p>남가주 대학원동문회 1,000</p> <p>아주여행사 500</p> <p>SNU Foundation 3,000</p> <p>OB 산악회 1,000</p> <p>Korean Dance Institute 125</p> <p>SNU 공대 500</p> <p>북가주</p> <p>이경희 (인문83) 500</p> <p>뉴욕</p> <p>석창호 (의66) 240</p> <p>미네소타</p> <p>황호숙 (사65) 1,000</p> <p>필라델피아</p> <p>손재욱 (가정77) 240</p>	<p>지부분담금</p> <p>남가주 3,000</p> <p>뉴욕 3,000</p> <p>뉴잉글랜드 1,000</p> <p>로키마운틴 200</p> <p>미네소타 550</p> <p>미시간 300</p> <p>북가주 1300</p> <p>북텍사스 550</p> <p>샌디에고 550</p> <p>시카고 2,400</p> <p>애리조나 200</p> <p>알래스카</p> <p>오레곤</p> <p>오하이오 300</p> <p>유타</p> <p>워싱턴DC 2,000</p> <p>워싱턴주 800</p> <p>조지아 800</p> <p>중부텍사스</p> <p>캐롤라이나 200</p> <p>커네티컷 300</p> <p>테네시</p> <p>필라델피아 1,000</p> <p>플로리다 300</p> <p>하트랜드 550</p> <p>하와이</p> <p>휴스턴 550</p>
---	--	--	---	--	---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달 2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 200 <input type="checkbox"/> \$ 500 <input type="checkbox"/> \$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7/2025~6/202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7/2026~6/2027, 1년) <input type="checkbox"/> \$200 (7/2025~6/2027, 2년)	<input type="checkbox"/> \$ 3,000 <input type="checkbox"/> \$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50,000 플래티넘 <input type="checkbox"/> \$100,000 이상, 다이아몬드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1,000 <input type="checkbox"/> 1/2 Size \$ 5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 300 <input type="checkbox"/> 1/4 Size \$ 250 <input type="checkbox"/> 웹사이트(1년) \$ 500	<input type="checkbox"/> SNUAA 장학후원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input type="checkbox"/> 모교 발전기금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한국 이름 _____ 영어 이름 _____ 단과대 _____ 이메일 _____ 전화번호 _____ 현주소 _____	업소명 _____	학번 (입학년도) _____ 지부 _____
업소록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240 (2025/7~2026/6, 1년) *2026년도 업소록 광고를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광고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름 _____ 단과대 _____ 학번 (입학년도) _____ 지부 _____ 업소 주소 _____ 업소 전화번호 _____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동창회 언제나 당신이 필요합니다.

미주동창회는 장학과 교육을 통해 차세대 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공헌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기회를 창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모교의 인류에 공헌하는 교육사업을 지원합니다.

EDUCATIONAL

- SNUAA Scholars Program**
서울대 ISP와 연계한 미래 세대 리더 육성
- SNUAA Forum**
동문 간 전문성을 잇는 지식 교류 플랫폼 운영
- Medical Student Exchange Initiative**
서울대-미국 대학 의대 학생 교환 프로그램 지원
-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서울대-미국 대학 글로벌 인재 교환 프로그램 지원

CHARITABLE & CULTURAL

- 사회 공헌 사업 지원**
지부 공익 활동 및 자선 행사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 문화 사업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추진

MISSION INFRASTRUCTURE

- 월간 동창회보 발행**
소식지 발행을 통한 동문 소통 및 참여 확대
-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관리**
SNUAA USA Web 기반 디지털 소통 허브 운영

OPPORTUNITY BUILDING

- Entrepreneurship Network**
젊은 동문의 창업을 돕는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
- SNU Global Connect @ CES**
CES와 연계해 차세대 동문 창업을 세계와 연결

FELLOWSHIP

- Senior Alumni Care**
설문조사 등을 통한 선배 동문 복지 수요 파악 및 지원
- Alumni Engagement**
지역별 동문 친선 행사 지원

동창회비 및 후원금 납부 방법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하단 참조)	QR Code
612-280-7589	snuaa.org	contact@snuaa.org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남가주 CA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cleee@gmail.com	기계/기술/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자동차/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뉴욕 / NY.NJ 의료/병원	필라델피아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저 성함 는 기부액 으로 기부에 참여합니다.
 연락처 휴대폰 번호 전공 학과 입학년도 년 입학

간단 참여 신청서를 찍어 213-435-1974로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빛나는 후원자님 덕분에 서울대학교의 내일이 더 반짝입니다.



한 끼 천원, 우리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매월 만 명의 만 원이 모여, 반짝이는 인재를 키워줍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선물이 됩니다

관람차가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오듯 기부의 순간들이 회전하며
 서울대학교의 밝은 미래를 향한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기부3관왕에 도전해보세요!



SNU 기부3관왕이 되시면 위의 오르골을
 SNU 기부3관왕 웰컴 패키지로 드립니다.



제18대 서울대 미주동창회

회장 황효숙(사)

상임고문: 송창원(문), 김권식(공), 신학철(공)
 고문: 한홍택(공) IT 담당
 이희운(농)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이준수(공) 조직관리 담당
 신용남(농) 법률 담당
 박평일(농) 친선 담당
 오인환(문) 전략개발 담당
 김태환(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II 의학 담당
 문성인(공) 지부지원 담당
 주한수(수) 특별행사 담당
 이승화(공) 세대간 소통 담당

차기회장 박상근(법)

명예회장 이상강(의)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옥(가),
 윤상래(수), 신용남(농), 노명호(공)

집행부

사무총장: 박현아(공)
 총무국장: 임동근(경제)
 재무국장: 손창수(상)
 섭외광고국장: 홍선례(음)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발행인: 황효숙(사)
 편집고문: 박용필(문)
 편집장: 신복례(인문)
 편집위원:
 김정필(공), 정태영(문), 이준수(공),
 한정희(미), 윤정아(생), 최화진(음),
 문성인(공), 김량국(사), 이춘우(자연대),
 정해원(자연대), 백승아(자유전공)

지속가능 발전기획 위원회

위원장: 이희운(농)
 위원: 박현아(공), 강경철(공)

브레인 네트워크

국장: 변정민(공)
 SNU 포럼 위원회: 위원장 김재훈(공)
 Entrepreneurship 네트워크 위원장:
 김량국(사)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신용남(농), 임헌민(공),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문성인(공)

회칙위원회

위원장: 이준수(공)
 위원: 김용현(상),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황효숙(사)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석(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612) 280-7589 | 이메일 contact@snuua.org |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미주동창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6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org

남加州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양수진(간호대80) T: (714) 335-2148
 sujinyang2011@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원경란(의대 84)
 T: (778) 883-1678
 estellewon@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 617-7585
 monicaWshaw.ca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 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북加州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대 79) T: (408) 464-4502
 beomsupkim@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 223-0887
 jaejyo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원덕수(공대 72)
 T: (617) 921-6798
 douglasdwohn@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이동균(공대 75)
 T: (847) 644-4807
 dlee1917@yahoo.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오충훈(자연대 81) T: (951) 795-8687
 peter.oh@asm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 83) T: (425) 998-4150
 jklee234@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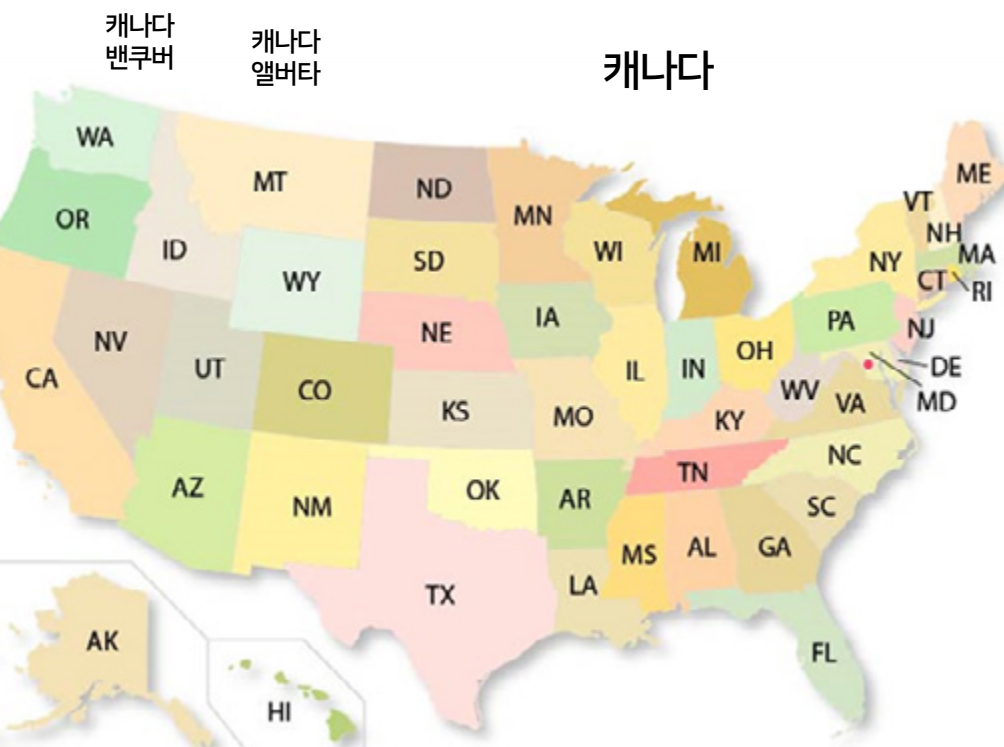
오하이오주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 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 77) T: (217) 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영훈(농대 95)
 kim0hun@g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choi@hotmail.com

휴스턴 H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김건호(공대 91)
 회장 kunhok@gmail.com



뉴욕 NY/NJ (Jul~Jun)
 김병순(사회대 82) T: (703) 407-4928
 kbs8717@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남욱현(경영대 84) T: (703) 898-6429
 minamusa@yahoo.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 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김영석(음대 74) T: (215) 287-3939
 imtenor@hotmail.com

중부 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 290-1911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 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김인구(농대 87)
 T: (404) 547-1859
 kevin@ikkimlaw.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 277-1636
 sinho.jung@duke.edu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 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NE/AR/OK (Jan~Dec)
 이주현(미대 92)
 T: (913) 220-3021
 june.ch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조동건(법대 65)
 T:
 dcho0806@bellsouth.net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Fairway Asset Corporation *You Can Trust*

“ 웃음 가득한 편안한 가정,
Fairway Asset Corporation 이 함께합니다.”

가정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모기지 페이먼트,
단순한 용자 서비스를 넘어선, 건전한 가정경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남욱현(경영 84)〉



Fairway Asset Corporation 은 워싱턴 지역 Lender 로서
고객의 편의, 최저의 이자율, On Time Closing Service 를 위해
License 를 갖춘 용자 전문가들이 고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익의 사회환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www.facloan.com NMLS#293044(www.nmlsconsumeraccess.org)

· VA License No. MC5452 · MD License No. 183469 · DC License No. MLB293044 · DE License No. 019327 · NC License No. L-169942 · GA License No. 60069
 · PA License No. ML48710 · NJ License No. 293044 · CA License No. 803J684 · IN License No. 27916 · CO License No. 293440 · AL License No. 22638
 · IL License No. MB 6761371 · FL License No. MLD1737 · TN License No. 1789528 · TX License No. 293044 · AZ License No. 1031839 · KY License No. MC832584

Maryland Office

301-279-6969

7361 Calhoun Pl, #422, Rockville, MD 20855

Annandale Office **703-259-6902**

Centreville Office **703-371-8343**

Ellicott City 지역 **740-931-4125**

Silver Spring 지역 **301-456-9962**

TX & AZ 지역 **643-253-2506**

DE & PA 지역 **267-275-9439**

NJ 지역 **201-362-8081**

NC 지역 **917-418-3587**

Richmond 지역 **703-309-5755**

GA(Atlanta) 지역 **470-268-7412**

조규승(문리대 72)



*MCA offers a wide variety of products
to fulfill the needs at home and your business.*

MAGIC CHEF®

norpole

Magic Chef
COMMERCIAL

mca
corporation

940 N. Central Avenue, Wood Dale, IL 60191
Tel: (630) 238-0600 | salesupport@magicchef.com

Visit us at
www.magicchef.com